■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25-380.
http://doi.org/10.17948/kcs.2022..94.325

옥소 기몽문학 초탐*
—작품의 현황과 특질을 중심으로—

양승목(梁承睦)**

목 차

1. 머리말
2. 『옥소고』 소재 기몽작품의 현황
3. 옥소 기몽문학의 특질과 배경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옥소 권섭의 기몽문학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꿈과 관련된 옥소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 종래의 연구 시야는 대개 「畵夢」 어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옥소가 꿈을 소재로 지은 문학작품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옥소는 일생에 걸쳐 자신이 꾼 꿈을 글감으로 섭취하여 실로 방대한 양의 시문을 창작하였으며, 이들은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채 '記夢'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며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온당하고 균형 있는 조명은 「화몽」은 물론

* 이 글은 2021년 5월 29일 한국고전문학회 제291차 정례학술대회에서 "옥소 권섭의 기몽문학적 성취와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본고의 미비함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의 기몽문학, 나아가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옥소가 남긴 기몽문학 작품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현전하는 2종의 필사본 『玉所稿』 전편을 대상으로 꿈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조사하여 옥소가 남긴 기몽작품의 총 수효가 기몽시 115제, 기몽산문 120편에 이름을 밝혔다. 이를 전수 목록화하고 주요 정보를 표지해 제공하는 동시에, 이로부터 옥소의 기몽문학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들, 곧 작품 현황과 창작의 추세, 양식적 구성 내역 등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작품의 내용에 주목하여 옥소의 기몽문학 전반을 관통하는 특질을 살펴보고, 이러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을 탐색해보았다.

이번 시도는 옥소의 기몽문학에 대한 보다 광시야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옥소 문학의 꿈과 관련된 작품에 대한 고찰이 적잖이 있었음에도 '초탐'이란 표현을 내세운 것은 기몽문학이라는 시좌를 취하여 그 총체를 살핀 사실상 첫 시도이기 때문이다. 본고를 통해 제공되는 목록과 정보들이 이 분야 연구의 다음 장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주제어: 권섭, 『옥소고』, 「몽기」, 「화몽」, 기몽문학, 기몽시, 꿈.

1. 머리말

고전문학 연구의 장에 玉所가 소개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다. 집안에 전해지던 그의 유고가 발견된 것은 1971년, 이를 대상으로 첫 연구성과가 제출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이니,[1] 옥소에 대한 연구는 올해로 46년째가 되는 셈이다.

옥소 연구의 초기는 그가 남긴 시가 작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玉所稿』라는 "새로운 광맥"을 발견한 박요순 선생이 옥소의 국문시가에 "첫 삽"을 내렸던 후과일 텐데, 존재는 알려졌지만 접근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 그가 시가 작품의 원문과 풀이를 제공함으로써 자연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랐던 것이다.[2] 이후 옥소 연구의 전기가 되었던 것은 『옥소고』의 영인본 출

1) 박요순, 「옥소 연구」, 『한국언어문학』 14, 한국언어문학회, 1976.
2) 박요순, 「신발견 황강구곡가고」, 『어문논집』 20, 안암어문학회, 1977; 「권섭의 가사연구」, 『국

간이다.[3] 『옥소고』의 전모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경로의 접근이 이루어졌고,[4] 이로부터 옥소에 대한 연구 시야는 일층 확장되었다.

기실 『옥소고』 영인본이 나오기 전부터 회자되던 자료가 있다. 바로 옥소가 자신이 꾼 꿈을 기록해두었던 「夢記」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꿈을 적은 글과 함께 꿈에 본 장면을 그린 그림을 나란히 배치한 소위 '畵夢'[5] 부분이 유다른 주목을 받았다. 물론 이는 이에 대한 번역본[6]이 일찍이 나왔던 덕택으로, 이로부터 「화몽」을 대상으로 삼은 첩첩의 연구성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7]

어국문학』 85, 국어국문학회, 1981. 이후 박요순 선생은 옥소의 시가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제출하였고(1986) 이를 바탕으로 『옥소 권섭의 시가연구』(탐구당, 1987)를 출판했는데, 이 후반부에 「시가원문 및 어석」이 있다.

3) 권섭 저, 이창희・장정수・최호석 편, 『옥소고』(전17권), 다운샘, 2007.

4) 옥소에 대한 종래의 전반적인 연구 현황은 졸고, 「조선후기 몽기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4-5면의 주13)・14)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로 『옥소고』 영인본의 출간과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성과는 다음 두 책으로 집성된 바 있다. 신경숙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5) 주지하듯 이 부분은 따로 제목이 붙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역주를 진행한 이창희 교수가 '夢畵'라 이름한 바 있으나, 연구자들의 완전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夢畵記'를 비롯한 몇 가지 명명이 혼용되어왔다. 최호석 교수의 최근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는 『옥소고』 소재 「散錄內編(三)」의 기록에 주목하여 옥소가 자신의 글을 문집으로 편집하기 위해 구상한 바를 정밀하게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옥소 스스로 「夢記」를 '記夢'과 '畵夢'으로 나누어 칭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호석,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 석인본 『옥소집』의 간행」, 『영남학』 7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11-15면; 본고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몽기」 가운데 전반부를 「기몽」, 그림이 함께 수록된 후반부를 「화몽」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6) 권섭 저, 이창희 역, 『옥소 권섭의 꿈세계: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다운샘, 2003.

7)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안계복, 「옥소 권섭의 꿈의 세계에 나타난 경관 특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황경일, 「옥소 권섭의 산수 산문 연구: 「해산록」과 「몽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권정은, 「권섭의 꿈의 기록과 그 심리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6,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윤진영, 「옥소 권섭(1671~1759)의 그림 취미와 회화관」, 『정신문화연구』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최호석, 「『옥소고』 소재 몽화의 제작에 대한 연구」, 『역사민속학회』 2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조영임, 「옥소 권섭의 「몽기」에 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박태진, 「권섭의 '기몽시' 창작에 나타난 자아탐색의 가치 고찰: 「몽기」의 '기몽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권혁대, 「옥소 권섭의 한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1(제6장); 안세현,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권섭(1671-1759)의 「몽기」와 유경종(1714-1784)의 「의원지」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정난영, 「옥소 권섭의 몽화기 연구: 내면세계의 흐름과 산수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9, 한민족문화학회, 2015.

그런데 「화몽」에 대한 저간의 연구가 적잖이 축적되었지만 그만큼의 다채로운 조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 논의의 귀결이 대개 다음 두 명제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유례를 찾기 힘든 흥미로운 문학적 성과라는 것, 또 하나는 옥소 특유의 산수취·유람벽과 관련지어 「화몽」 내지 그에 담긴 꿈의 함의를 '臥遊淸賞'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실로 이 두 결론은 비판이나 전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화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옥소의 생력·지향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겸비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귀착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옥소의 '꿈 소재 문학'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정체되어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체의 원인은 다름 아니다. 그동안 모두가 「화몽」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8] 이것이 대단히 독특한 성취임은 틀림없으나, 옥소가 자신의 꿈을 문필활동의 재료로 삼은 사례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까이로는 「화몽」 바로 앞에 수십 건의 산문이 줄지어 있거니와, 『옥소고』 전체로 눈을 돌리면 허다한 시와 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꿈을 기록하거나 꿈을 계기로 창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계를 이루고 있으나 그간 온당한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다. 까닭을 찾자면,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9]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정체와 한계를 돌파하고자 기몽문학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몽문학이란 경험적 꿈을 기록하는[記夢] 글쓰기를 일컫는 것으로, 장치로써 꿈을 활용하는[托夢] 조류와 대항을 이루는 문학적 전통이다.[10] 기몽

8) 「화몽」만이 아니라 「몽기」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조영임의 연구가 유일하다(앞의 글). 하지만 그 또한 그림이 없는 부분에 있는 꿈 기록의 수효를 잠시 지적하였을 뿐, 본격의 논의는 「화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역시 옥소의 산수취와 연관지어 의미를 찾고 있다.

9) 번역의 문제와 함께 『옥소고』의 필사상태도 한몫을 한다. 『옥소고』는 淨寫와 亂筆이 혼재되어 있는데, 「몽기」 전반부 즉 「기몽」 부분의 경우 뒤로 갈수록 글씨가 어지러워져 읽기가 만만치 않다. 시고 중에서도 초고처럼 보이는 부분이 더러 발견된다.

10) 기몽문학의 제반 층위와 양상에 대해서는 앞의 졸고, 11-21면 참조. 참고로 고전문학에서 꿈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몽유록, 몽자류소설 등은 '탁몽문학'의 대표적인 작품군이다.

문학이라는 시좌를 취한 이유는 다름 아니다. 옥소의 꿈을 소재로 지은 문학 작품들은 예외 없이 '기몽'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몽문학의 다양한 양태가 그 작품들 속에 두루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기몽문학이라는 큰 시야를 갖고 그 전체를 조망할 때 비로소 그 지형과 국면을 유기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옥소가 남긴 기몽문학 작품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현전하는『옥소고』전편을 대상으로 산재한 기몽작품을 모두 찾아내어 목록화하고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예의「화몽」주변에 머물러 있는 옥소 기몽문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혀줄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총론적 차원에서 옥소 기몽문학의 특질과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의 기몽작품들에서 간취되는 특징적인 면모를 개괄하고, 유례를 찾기 힘든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기저를 고구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옥소의 기몽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기초를 닦는 것이 이번 논의의 목표이다.

2.『옥소고』소재 기몽작품의 현황

주지하듯『옥소고』는 이른바 제천본과 문경본 두 종의 필사본이 전한다.[11] 양쪽 다 일부 낙질이 존재하며 서로 편집체제와 수록작품에서 다소간

11) 따로 1938년에 나온 석인본『玉所集』이 있다. 후손 權熙萬이 편집하여 출판한 것인데, 상기 필사본 2종에 비해 분량이 현격히 적고 산삭된 작품이 많다. 특히 꿈과 관련된 작품은 거의 취택되지 않았던바,『옥소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별도로 최근 문경옛길박물관에『玉所稿中』이라 표제된 자료가 존재함이 새롭게 보고되었으며, 최호석은 이것이 기존『옥소고』의「詩上」부분과 함께 옥소가 스스로 선별·편집한 문집임을 논구한 바 있다.「옥소의 자편문집『옥소고』「상」·「중」에 대하여」,『동양고전연구 85』, 동양고전학회, 2021; 이 논문 말미에『옥소고 중』에 수록된 시의 목록과 출전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 제139제「夢作」, 제142제「似夢非夢間作」, 제156제「寄別士龍太守作首句而■下三句夢中賡成」등은 기존 영인본『옥소고』에 없는 말년의 기몽시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필자가 이 자료를 직접 열람하여 이들 작품의 실제를 살펴보지 못한바, 이번 논의에서는 이 세 작품을 수렴하지 못하고 영인본『옥소고』에 의거하여 이하의 논의를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필자는 현재 영인된『옥소고』이외의 옥소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7월 문경옛길박물관에 옥소 관련 소장자료의 현황을 요청하여 목록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목록에서는『옥소고 중』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차이를 보이는바,[12] 옥소가 남긴 기몽작품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둘을 상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근래 이 두 본이 함께 영인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이러한 작업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출판 과정에서 작성된 '총목차'가 큰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영인본에서 제공하는 총목차를 참조하되 『옥소고』의 내용에 대한 전수 검토를 병행하여 기몽작품을 조사하였으며,[13] 그 결과 115제의 기몽시와 120편의 기몽산문을 찾아내었다. 이 작품들의 전체 목록은 주요정보를 표지하고 활용성 있게 가공하여 본고의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하는 바이며,[14] 이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작품 현황과 관련해 톺아볼 사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창작의 추세

남아 있는 작품들로 보건대 옥소가 처음 자신의 꿈을 기록한 것은 16세이며, 이후 작고하기 한 해 전까지 꾸준히 기몽작을 지었다. 일생에 걸쳐 꿈을 소재로 문학활동을 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셈이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 그의 기몽 창작에는 기복이 없었는가. 아래의 그래프로부터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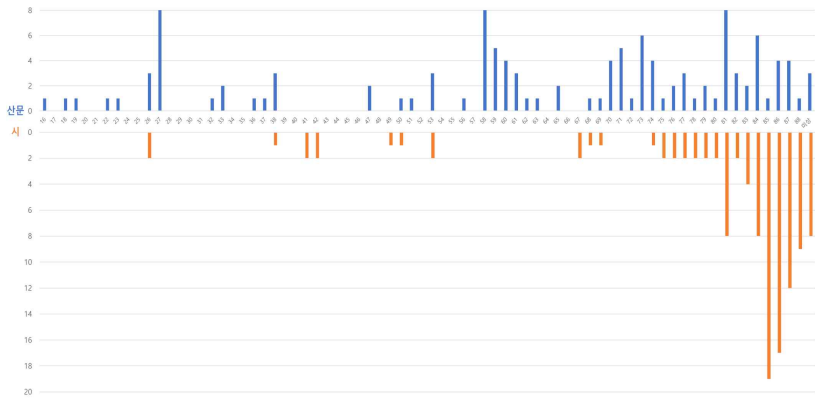
---

12) 이에 대해서는 최호석,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 이창희 외, 앞의 책, 2007 참조.

13) 먼저 영인본의 총목차가 대단히 정밀하게 작성되었으며 이에 크게 힘입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다만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바 간혹 목차에 표기되지 않은 작품도 있어 직접 검토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예컨대 [부록1] 기준 98번 「術夢」 같은 작품은 목차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14) 두 개의 도표로 구성하였다. [부록1] '『옥소고』 소재 기몽시 일람'은 각 작품의 내용상 핵심어와 형식적 구분(몽후작/몽중작)을 밝혀 전체를 목록화한 것이다. [부록2] '옥소 기몽문학 연대별 총람'은 시와 산문을 아울러 옥소의 생애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이 부분에 산문의 내용표지를 병기하였다. 단 「화몽」에 수록된 글에 대해서는 번역본이 이미 나와 있는바 따로 내용표지를 부기하지 않았다.

옥소 기몽작품의 연령별 분포



『옥소고』에 수록된 기몽 작품을 연령에 분속하여 그 수효를 시각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생애 구간별 기몽 창작의 빈도와 추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대체로 인생의 후반기에 보다 밀도 있게 기몽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이다. 시의 경우 70대 중반 이후로, 산문의 경우 58세를 기점으로 그 전과 비교하여 확실히 더 자주 더 많은 작품을 지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생애 전반을 큰 시야로 훑어보건대 기몽시보다 기몽산문의 창작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 또한 지적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사실로 확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살펴야 할 것들이 있다.

일단 현재 전하는 『옥소고』가 완질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특히 시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안이다. 『옥소고』에 시는 총 15개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경본에는 이 가운데 1·5·9·12만 남아 있고 제천본은 4~7까지가 일실되었다. 두 본을 합해서 보아도 「詩四」·「詩六」·「詩七」은 완전히 잃어버린 구간이 되는 것이다.[15] 시 부분의 편제가 대체로 시

15) 참고로 제천본과 문경본의 詩稿가 동일하게 편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수록된 작품과 하나의 편목으로 묶인 작품수에 다소의 출입이 있는 것이다. 다만 문경본은 제천본을 토대로 재편한 것이고 제천본에 시 15편목 중 11개가 남아있는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따로 제천본에 「詩上」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시1~15에서 옥소 스스로 선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검토는 최호석, 앞의 글, 2007; 2021을 참조할 것.

간순을 따르고 있는바 1734년 후반부터 1736년 일부와 1739년 후반부터 1743년 일부까지, 즉 대개 64~66세, 69~73세 상간에 지은 옥소의 詩稿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 공교롭게도 위의 그래프에서 해당 시기 동안 창작된 기몽시는 1편에 불과한데, 50대 후반 이후 기몽산문을 한층 더 활발하게 창작하고 있음을 떠올려보면 이때 지은 기몽시가 조금 더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추정을 그 이전까지 섣불리 소급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아있는 제천본의 「詩一」부터 「詩三」까지에 8~64세 동안 지은 시들이 온전히 실려 있고, 여기에 있는 기몽시가 11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옥소는 60대 초반까지는 자신의 꿈을 詩化하는 데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옥소가 지은 기몽시가 반드시 시고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바 「화몽」에 실린 몽기의 각 편에 예외 없이 시가 붙어 있는 것인데, 이들을 뽑아 세어보면 도합 65수에 이른다. 또 그 앞에 있는 「기몽」 부분에서도 4수의 시를 더 찾아낼 수 있다. 부록의 목록과 위의 그래프에선 이 시들을 몽기 작품의 일부로 간주하여 따로 계산하지 않았던 것일 뿐, 자신의 꿈을 소재로 한 시 자체는 이처럼 더 많은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64세 이전의 공소함을 메워줄 수 있을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몽기」(「기몽」+「화몽」) 소재 기몽시 작품의 현황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작품수	2수	1수	5수	1수	23수	10수	18수	9수	69수

산문의 지면에서 추출한 기몽시의 수효를 연령대별로 정리한 도표이다. 보다시피 여기서도 생애의 전·후반기가 서로 명확하게 나뉜다. 즉 40대 이전을 다 합해도 10수가 채 안 되는 반면, 50대 이후로는 훨씬 많은 작품이 있는 것이다. 이는 앞의 그래프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창작의 추세

와 대체로 합치하는 것으로, 이것이 옥소의 기몽문학 창작의 큰 추이임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한다. 단 50~60대 동안 33수에 이르는 시를 지었다는 것은 따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시고에서는 이 시기 또한 그 앞과 마찬가지로 작품이 매우 드물어 기몽시의 집중적인 창작을 70대 중반 이후로 지목했던 터인데, 이 작품들의 존재를 통해 기몽시 또한 산문과 마찬가지로 대개 50대 이후로 활발하게 창작되었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산문의 경우 제시한 수 이상의 작품이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두 가지 사실에 의거하여 이렇게 추단하는 바이다. 우선 옥소는 자신의 꿈을 기록한 글을 「몽기」라는 이름을 붙여 별고로 묶어두었다. 많은 수가 이미 여기에 수렴되어 있는 터 애초 여타의 지면에 실린 작품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몽기가 주로 실려 있는 부분이 「文」과 「雜著」인데, 이 부분은 시고에 비해 결락분이 적은 편이다.[16] 이에 『옥소고』의 낙질에 몇몇의 몽기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수가 위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추세를 획기적으로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앞서 그래프를 보고 내렸던 일차적인 해석은 크게 틀리지 않다. 단 작품의 실재를 확인할 수 없는 구간, 시와 산문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언술을 조정하면 충분하다. 옥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몽작품을 창작한 시기는 대개 50대 중반 이후로,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활발하게 많은 작품을 짓고 있다. 또 꿈의 내용을 기록한 산문 즉 몽기를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꾸준히 지었던 데 비해, 꿈 경험을 소재로 시를 짓는 것은 50대 이후로 점차 활성을 띄어 70~80대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이의 의미를 논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옥소의 문필활동 전반을 두고 보건대 이것이 기몽문학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옥소고』에 수록된 작품들의 분포 자체가 장년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고 15편 가운데 64세까지의 시가 불과 3편으로 편성되어 있음으로부터 쉽게

16) 제천본을 기준으로 「문」과 「잡저」는 각각 6개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文二」와 「雜著五」만 전하지 않는다.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요컨대 50대 이후 기몽작이 많아지는 것은 그의 전체적인 문학창작의 추세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년기 이후 더욱 활발하게 창작에 몰두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옥소의 생력이 모두 소상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일정정도 한계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의 이거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옥소는 서울 삼청동의 외가에서 태어나 44세까지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모친의 대상을 마치고 청풍으로 이주한 뒤 충청도 강경, 전라도 옥포 등지로 옮겨 다니다 54세에 黃江에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청풍, 제천, 문경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終老한다.[17] 서울에서 반평생을 살고 향촌으로 내려와 나머지 반평생을 살았던 셈인데, 과도기를 거쳐 인생 후반기의 터전을 완전히 잡는 것이 황강 지역으로 돌아가는 54세 즈음으로 보인다. 기몽문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문예창작이 더욱 활발해지는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인바, 인생 후반기 그의 창작적 활성은 안정된 향촌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2) 갈래별 작품 구성

작품 현황의 보다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와 산문으로 크게 나누어 정량적인 관점에서 그 양식적 구성, 所載의 양상 등을 정리한다.

먼저 기몽시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꿈을 꾼 뒤에 지은 夢後作으로, 대개 꿈 내용을 기술하거나 꿈에 대한 감회를 부친 시이다. 다른 하나는 꿈 속에서 시를 지은 경우인데, 기몽시의 전통에선 으레 夢作 또는 夢中作이라는 제명을 붙였던 것이다. 몽중작의 경우 꿈 속에서 시 전체를 얻은 경우도 있지만, 꿈에서 시구의 일부를 얻고 꿈을 깨고 난 뒤 나머지를 채워 완성하는[足成] 사례도 종종 보인다. 이 둘을 구분해 봄으로써 기몽시의 지형을 조리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옥소는 91편의 몽후작과 26편의 몽중작을 지었다.[18] 차례로 살펴보자면,

17) 옥소의 생력은 신경숙 외, 앞의 책, 2007, 제4부 '자료 및 연보' 부분이 큰 참조가 된다. 여기에 옥소가 자신의 생애를 자술한 자료 6편이 이창희에 의해 편역되어 실려 있고, 이어 장정수가 정리한 연보가 첨부되어 있다.

그가 지은 몽후작은 대체로 꿈 내용을 기술하기보다 꿈에 대한 후감을 시로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 내용에서 述夢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사례가 간혹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작품은 수가 많지 않으며 첨부하는 목록에 따로 표기를 해두었다. 기실 이러한 양상은 서정적 성격이 강한 시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기몽시의 전통에서도 몽후작은 대체로 몽후감을 시화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꿈 내용은 시의 제목이나 幷序·後識 등에 기재해두는 것이 일반인데, 옥소 또한 이러한 관습을 따르고 있다. 특히 옥소의 경우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그릇으로 몽기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터이니, 그의 기몽시가 꿈에 대한 반응과 후감을 형상화하는 데 치중해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19]

그런가하면 몽중작은 몽후작에 비해 그 수가 아주 적다. 그렇다고 실망할 게 아닌 것이, 이것만으로도 기몽시의 전통에서 한 개인이 지은 것으로 손에 꼽을 만큼 많은 수에 해당한다.[20] 이에 대해서는 6,000을 웃도는 작품수가 대변하는 그의 열렬한 시 창작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꿈속에서도 시를 짓는 것 또는 시구를 얻는 것, 그리고 깨어나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거나 그것을 활용해 온전한 시로 주성해내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꿈을 이색적인 詩作의 방편 내지 詩材 섭취의 경로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몽중작을 남긴 다른 작가들에게서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하나의 이벤트로서 몇몇의 단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특기할 만하다.

이 밖에 옥소의 기몽시에는 기존의 기몽문학 전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도가 포착되기도 한다. 가장 이목을 사로잡는 것은 '記夢'이라는

---

18) 앞서 시고에 실린 기몽시의 총 수효를 115제라 한 것과 차이가 있는 이유를 간단히 밝혀둔다. 총수는 題數를 따진 것으로, 한 제목 아래 몽중작과 몽후작을 함께 실은 경우도 있어 세부적인 편수를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세한 것은 부록의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이는 시고에 편성된 시를 대상으로 셈한 것이다. 산문에 함께 들어있는 시들에서는 몽중작이 4수가 보이고 나머지는 다 몽후작에 해당한다.

19) 부록의 목록에서 같은 날 같은 꿈을 가지고 시와 산문을 동시에 쓴 사례도 더러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 조선조 기몽시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앞의 졸고, 26-37면 참조.

제목이 붙은 시조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자신의 꿈 체험을 문학작품으로 창출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한문학에서 이루어졌던바, 국문시가로서 기몽을 내세운 유일한 작품이다.[21] 또 주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다. 꿈에서 지은 시를 옮겨 적거나 꿈 내용을 시화하면서 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절에 주석으로 설명을 붙이는 것인데,[22] 기몽시로서 대단히 이색적인 작법을 구사한 사례로 기억해둘 만하다.[23]

한편 옥소는 꿈을 소재로 시만큼이나 다채로운 산문을 지었다. 옥소는 그 대부분을 '夢記'라 이름한 별도의 편목에 모아두었는데, 그 내역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대로 「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잘 알려진 「화몽」은 그 후반부에 해당하며, 그 앞에 그림이 없이 글로만 꿈을 기록해둔 부분, 곧 「기몽」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명이 이루어진 예도 없거니와, 간략히 언급했다 해도 그 체제와 작품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24] 「기몽」 부분에는 「記夢說」과 「聖則夢說記」라는 제목이 붙은 2편의 몽기가 맨앞에 배치되어 있고, 그 뒤로 따로 제목을 붙이지 않은 몽기가 행을 바꾸어 적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다. 주의할 점은 현전하는 2종의 필사본에 수록된 작품이 서로 약간의 출입이 있다는 것인데, 양본을 서로 대조하여 수를 세어본바 앞의 두 작품을 포함하여 총 58편의 꿈 기록이 실려 있다.[25] 그리고 그림을 곁들인 「화몽」에 총 55편의 작품이 있고,[26]

---

21) 필자는 옥소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있음을 조명하며 이 작품을 청각매체를 활용한 사례로 지목하며 그 의미를 약술한 바 있다. 「옥소 권섭으로 본 기몽문화의 제 양상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71, 우리어문학회, 2021, 476-477면 참조.

22) [부록1]의 30번 「趙濟博泰萬挽 夢作」, 98번 「述夢」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23) 참고로 詩註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어진 기몽시는 金安老의 「夢謁宣聖」(『希樂堂稿』 권2), 趙冕鎬의 「記夢五首」(『玉垂集』 권6)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24) 이창희의 경우 「몽기」에 대해 해제를 붙이며 이 부분을 「記夢說」에 54편의 작품을 수록한 것이라 하였고(이창희 역, 앞의 책, 185면), 조영임은 이 부분에 대해 「기몽설」과 「聖則夢說記」라는 두 편의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전체 54편의 산문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하였는데(조영임, 앞의 글, 405면), 모두 정확하지 않다.

25) 필자는 앞의 졸고, 2021에서 이 부분의 작품수를 '55편'이라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착오임을 밝힌다. 이본 사이의 출입과 착종의 양상을 엄밀히 검토해본바 총 58편의 몽기가 수록된 것이 맞다.

26) 「화몽」 또한 제천본과 문경본 간의 차이가 있다. 위에 제시한 작품수는 양본을 대조하여 중복

그 밖에 「文」, 「雜著」, 「墓山誌」, 「推命誌」 등 여타의 편목에 산재한 글이 총 7편 있다.

옥소가 지은 몽기의 전반적인 지형은 편제를 기준으로 크게 분변해 볼 수 있다. 우선 「기몽」에는 짧고 간결하게 꿈의 내용만을 적은 글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몽기의 양식적 정형에서 후기 부분이 탈락되거나 극단적으로 축소된 소위 단형 몽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27] 이는 꿈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바, 이 부분은 옥소가 자신의 꿈을 일차적으로 적어두던 일종의 노트 즉 '夢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28] 옥소는 인상 깊은 꿈을 꿀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적어 모아두었던 것인데, 이것이 시에 비해 산문 작품이 전 생애에 걸쳐 고르게 남아 있는 이유이다.

「화몽」은 옥소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이 몽록에서 자신의 臥遊淸賞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뽑아 그림을 붙여 별도로 편성한 것이다.[29] 옥소가 '奇勝을 만난 경우'라 언급하기도 했으니 이로부터 그의 산수지향과 회화취미를 특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접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화몽」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있다. 「화몽」 외에도 그의 산수취가 물씬 묻어나는 기몽작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선발되지 않은 이유는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문의 행간과 작품의 질감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부분에 실린 글편들은 세 가지 요건의 교집합으로 선발된 것임을 눈치챌 수 있다. 일단 자신의 꿈 가운데 그림이 될 만한 것,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30] 그러면서도 와유청상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선택

되는 것을 뺀 총 숫자이다.

27) 몽기의 양식적 정형과 단형 몽기에 대해서는 앞의 졸고, 2020, 65-76면 및 160-173면을 참조할 것.

28) 이에 대해서는 앞의 졸고, 2021, 485-489면에서 상론한 바 있다.

29) 權燮, 『玉所稿』 ⑨雜錄一/⑯推命紙, 「夢記序」. "所遇奇勝之境, 則有別錄而有畵."; 「夢畵記序」. "就篋中記夢之文, 呼仲君, 而一一手携面命, 畵于紙, 成卷." (사각형 내의 숫자는 상기 영인본의 책수. 이하 『옥소고』의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 작품명과 영인본상의 책수·편명만 밝히기로 한다.)

30) 이러한 요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화몽」 외에도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꿈 기록이 다른 지면에서도 더러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꿈에서 수십 마리의 용이 그려진 누각과 거대한 노룡의 무늬가 보이는 암벽을 보았다는 「기몽」의 6번 글 같은 것이 그러하다. 적당한 삽화를

된 것이다. 이렇게 고른 꿈 기록에 그림을 붙이고 시로써 갈무리하여 제작한 것이 「화몽」으로, 엄선과 가공이 들어간 일종의 2차적 결과물인 셈이다.

「기몽」·「화몽」 밖에도 몇몇의 몽기가 산재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夢詩記」(文一)와 「祚應癸丑正月夢藝中事代錄 自書」(墓山誌二) 같은 작품들은 옥소 자신이 아닌 남의 꿈을 소재로 쓴 글이라 예의 「몽기」에 함께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그 외에는 주로 잡저에 실린 글들인데, 이들은 「몽기」에 있는 단형 몽기들과는 또 다른 질감을 갖고 있다. 꿈의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정황과 깨고 난 이후의 감회와 사유까지 담아 한 편의 근사한 산문으로 빚어낸 결과물들로, 산문으로서 몽기의 전형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작품들인 것이다. 「몽기」의 맨앞에 있는 「기몽설」과 「성칙몽설기」 또한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작품이라 하겠는데, 이들을 아울러 또 하나의 2차적 성취로서 범주화할 수 있다.

3. 옥소 기몽문학의 특질과 배경

또 다른 경로로 옥소 기몽문학의 성취를 조명해보기로 한다. 앞의 검토가 작품의 현황과 지형을 살펴 그 양적 경개를 개관해본 것이라면, 이번에는 작품의 내용과 창작의 동인에 주목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옥소의 기몽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면모를 일별해보고, 나아가 기몽문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보적인 성취를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을 고구해보고자 한다.

1) 기몽작품의 성격과 특질

옥소의 기몽문학은 대단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이미 살펴본 수백에 이르는 거대한 작품 규모,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창작의 지속성, 구사하는 양식의 다양성 등도 그 일면으로서 일컬을 만한 것이나, 이것만으로 위

갖추어 「화몽」에 끼워 놓아도 이질감이 없을 내용인데 옥소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예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닌데, 이는 그림이 될 만한 것 가운데서도 몽경의 장면이 깊게 각인된 것들이 편취되었음을 말해준다.

와 같은 단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내적 자질로부터 이를 말할 수 있는 바 또한 적지 않다.

먼저 그의 기몽에서 폭넓게 감지되는 일상성을 논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옥소는 자신의 꿈을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기록한다. 꿈을 써두는 노트[夢錄]를 별도로 가지고 운용했음을 확인했거니와, 그의 기몽작 가운데 꿈 내용만을 건조하게 초록해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 대로, 내용이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날것 그대로의 꿈을 꾸준히 적는다. 전자는 그의 작품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기억나지 않는다[不記]', '잊어버렸다[忘]'는 식의 표현이나 '云云' 등의 언급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요, 후자는 아래와 같은 작품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烏甲(음성 감곡면)에서 낮잠을 자다 꿈에 한 장부를 만났는데, 그는 춘추대의를 강하게 설명하였다. 내가 '沛公劒'과 '宣尼書'로 두 구를 써서 주는데, 아직 위의 두 글자를 마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좀이 배었다[蠹餘]" 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놀라 잠을 깨보니, 촌옹이 동자에게 "보리를 얼마쯤 베어 왔느냐?" 묻고 있었다. '베었느냐'는 말이 '좀이 배었다'는 것과 비슷하여 소리로 인해 꿈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았다. 괴이한 일이다.[31]

춘추대의를 역설하는 장부를 만난 꿈 이야기인데, 그보다 눈이 가는 것은 뒷부분이다. 꿈에서 누군가 갑자기 외친 소리가 알고 보니 옆에서 나누던 대화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취언에 가까운 것으로 다른 문인들의 기몽작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꿈에서도 춘추대의를 논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지, 개꿈이라 웃고 넘길 수도 있는 뒷내용을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옥소가 자신의 꿈을 가능한 자의적인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쓰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 이 하나를 들었을 뿐이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작품은 꽤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대개 내

31) 「烏甲午夢, 逢一丈夫, 劇說春秋大義. 余書贈'沛公劒·宣尼書'兩句, 而猶有上二字, 未及下, 傍有一人, 遽曰: "蠹餘!" 因此驚覺, 則村翁問童子曰: "大麥幾許刈來乎?" 刈乎之語, 與蠹餘彷彿, 故其因聲感夢如此, 可怪.」(⑫詩一). 참고로 이 제목 아래에는 "天下豈無沛公劒, 蠹餘猶有宣尼書."라는 시구가 붙어 있다.

용이 산만하거나 뒤죽박죽이어서 그 함의가 선명하지 않은 꿈들이 그러하다.

꿈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 즉 일상적인 행위로서 가감 없이 기록하는 태도는,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해 꿈을 차용 내지 활용하는 托夢文學의 그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룸은 물론, 꿈을 이벤트로서 소비하는 일반적인 기몽문학의 그것과도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기몽작에는 특별한 꿈뿐만 아니라 심상한, 또는 의미를 부여하기 난감한 꿈들까지 걸러짐 없이 다 기록되게 된다. 이들은 작품의 의미를 추출하기 난감한 대상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옥소 기몽문학이 가진 특유의 질감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도 하다. 산수지향이나 이념적 의식 같은 거창한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비근한 그의 관심사나 취향, 심리 등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까닭이다.

몇 가지 도드라지는 것들을 일별해본다. 먼저 집터를 찾거나 별서를 짓는 내용의 꿈이 제법 보인다. 40대 중반 이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와 향촌생활을 하는 것, 또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 몇 차례의 이거를 단행하며 좋은 터전을 물색했던 그의 이력과 조응하는 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로 「화몽」에 있는 '海島別墅'라는 작품은 익히 알려진 것이요, 이 밖에도 '岩亭土室', '別區亭廬', '會心地界' 같은 꼭지를 지목할 수 있다. 「기몽」 부분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蒼峯村이라는 곳으로 卜築을 위해 돈을 챙겨 떠났다는 24번의 꿈,[32] 한 福地를 얻었는데 李衡佐가 먼저 그곳에 집을 짓고 있어 인사를 하고 구경을 했다는 44번의 꿈,[33] 형님과 말을 타고 골짜기로 들어가며 자신이 새로 지은 집 얘기를 나누는 50번의 꿈 등이다. 뿐 아니라

32) 내용이 길지 않은바 원문을 보인다. 「夢記_24」(⑨雜錄一/⑯推命紙). "壬子二月三日夜夢, 爲卜築蒼峯村, 載錢而去. 過丈湖, 遷而至丹丘群居, 蒼峯在隔水數里外, 與人而往, 未到而寤. 數峰蒼峭, 洞壑幽閒, 村籬隱約, 可居. 大江流其外, 可喜. 江岸垂柳, 正搖颺於春風. 寤題一詩, 曰: '水北蒼峯洞, 蒼峯起赤城. 金家歸隱計, 春日載錢行.'"

33) 이 작품은 꿈에서 본 광경과 겪은 일 등을 퍽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분량이 짧지 않아 원문을 들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 작품에는 꿈속에서 이형좌가 짓고 있던 집의 평면도까지 그려 첨부해놓은 점이 흥미롭다. 옥소가 꿈을 기록하는 태도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그 그림은 제천본과 문경본에 모두 실려 있다. 참고로 이러한 유사한 형태, 즉 집의 제도를 그린 그림은 이 밖에 『옥소고』에 6점이 더 있는데, 최원석은 이를 '(住)宅圖'라 묶어 山圖와 함께 『옥소고』의 풍수 관련 자료로 소개한 바 있다(「「묘산지」에 수록된 풍수 관련 자료와 해설」, 신경숙 외, 앞의 책, 2007, 244-247면).

기몽시에서도 이러한 관심사가 투영된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내용이 재미있다. 꿈에 강협 인근의 새 집터를 보러 갔다가 그곳이 너무 좁아 다른 땅을 보고자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한다. 따르던 하인이 접대가 시원찮다며 사공을 꾸짖자 사공이 "내 이미 수궁을 출입하며 네 주인의 役事를 도와 이루어주었으니 날 업신여기지 말라!"라 했다는 것이 골자이다.[34] 아마 별주부 이야기가 뒤섞여 꿈이 된 모양으로, 옥소의 별서에 대한 관심이 독특하게 발현된 꿈 이야기라 하겠다.[35]

이와 비슷한 듯 또 다른 그의 관심사가 묏자리이다. 『옥소고』에 「墓山誌」가 3개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36] 옥소는 풍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37] 이 또한 그의 꿈에 몇몇의 흔적을 남겼다. 「화몽」에 수록된 '龜潭壽藏', '盤龍名穴' 같은 작품을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 눈을 잡는 글 한 편이 있는데, 제목은 그의 장손 權祚應의 꿈을 대신 기록하였다고 붙여 놓았다. 내용인즉 권조응이 영남에서 온 풍수에 능한 승려를 만나 함께 집안의 선산과 산소를 돌아다니며 문답을 하는 것인데, 말미에 이 승려의 이인적 풍모를 덧붙이며 성은 '卯'요 이름은 잊었다 한다.[38] 이는 비록 옥소 자신이 꾼 꿈은 아니지만, 꿈과 풍수에 대한 관심의 교집합에 놓여 있는 작품으로서 따로 기억해둘 만하다.

또 풍수만큼이나 옥소가 흥미를 두었던 것이 점복이다. 역시 「推命誌」라 하여 소위 卜筮·推數와 관련된 편목을 설정하였을 정도이다.[39] 특히 문경본

34) [부록1]의 43번 작품으로, 꿈 내용을 적은 제목은 논문 말미의 목록을 참조.

35) 이러한 별서 경영의 관심사는 종래 익히 지적되었던 그의 산수취와도 접맥하는 부분이 있으나, 승경을 유람하고 즐기는 것과는 또 다른 결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그의 꿈에 산수취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은 기존에 누차 논의되었던 바라, 본고에서 별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다. 다만 산수를 즐기고 갈망하는 욕망이 근저에 있는 작품이 예의 「화몽」 외에도 더러 있다는 정도는 지적해둘 만한데, [부록1]의 8, 42, 94번 작품 등이 그러하다.

36) 제천본에만 있다. 영인본 ⑤권 전체에 「묘산지」 1·2·3이 수록되어 있다.

37) 참고로 옥소의 풍수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조명된 바 있다. 최원석, 「조선후기 지식인의 풍수에 대한 인식과 실천: 옥소 권섭의 「묘산지」를 중심으로」, 신경숙 외, 앞의 책, 2007.

38) 「祚應癸丑正月夢藝中事代錄 自書」(⑤墓山誌三). "僧蓋年過百歲, 而體小如香童子, 隨我疾馳之馬, 而常緩步在馬前, 誠異人也. 其姓卯, 其名忘之."

39) 문경본에만 있으며, 영인본 ⑯에 수록되어 있다.

『옥소고』에서 「몽기」는 이 「추명지」와 함께 묶여 있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 꿈과 점에 대한 관심이 서로 멀지 않은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의 기몽작에서 '이는 어떤 징조일까[何兆]'라는 말을 투식처럼 사용해 글을 맺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꿈 내용 자체가 점과 관련된 사례도 더러 찾을 수 있다. 스물여섯이 되던 해 4월에 꾸었다는 꿈이 대표적이다. 꿈에 한 노인이 와서 옥소가 태어난 시각과 날짜를 묻더니 벽에 육효를 그리고는 "이것이 너의 일생이다"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옥소는 이것을 「몽기」에 짤막하게 써두는 동시에, 따로 그 점괘를 풀이한 글을 써서 「夢筮」라는 제목을 붙여 「추명지」의 한 자리에 넣어두기도 하였다.[40] 또 87세 정월 초닷새에 어떤 이와 윷놀이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이 윷점을 보아주는 꿈을 꾼 것도 눈에 띄는 사례이다.[41]

꿈에서 여인을 자주 보는 것도 하나의 독특한 면모로 들어봄직하다. 6년에 걸쳐 한 여인을 아홉 번 꿈꾸는 것이 있는가 하면, 꿈에서 본 여인을 다음날 만났다든가 웬 여인이 노비를 보내 찾아오겠노라 연통하는 꿈, 夜郎이라는 기녀와 노래를 주고받는 꿈, 부르지도 않은 기녀가 찾아왔다는 꿈 등[42]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꿈을 여러 번 꾸었던 옥소이다.[43] 예로든 첫 번째 글의 경우 꿈에 본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나오기까지 하는 등 그 내용이 적이 흥미롭다. 여타의 기몽문학에서는 이처럼 정체모를 여인을 꿈에서 보았다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학자이자 문인으로서 그리 내보일 만한 꿈이 아니기 때문일 터인데, 옥소는 이들까지도 버리

40) 꿈에서 본 것이 '豊之小過'에 해당한다 하며 張厚元이라는 인물이 이에 대해 풀이한 내용을 부기해둔 것이다. 물론 서두에 짤막하게 꿈을 꾼 내력을 붙여두었다.

41) [부록1]의 87번 작품.

42) 차례로 「기몽_20」, 「기몽_14」, 「기몽_29」 및 [부록1]의 57, 71번 작품.

43) 이러한 성격의 꿈들과 관련하여 옥소가 87세 때 동갑이었던 老妓 可憐과 시로 교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볼 만하다. 옥소는 그녀가 자신에게 화답한 가곡을 한역하여 자신의 문집에 실어 놓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느 문인과 기녀의 창화처럼 연정을 노래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기녀를 꿈꾼 시점은 이로부터 멀지 않은 85~6세 상간이다. 참고로 옥소와 가련, 그리고 그녀의 노래를 한역한 작품에 대한 고찰은 장정수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옥소 권섭의 시조 한역시 「翻老婆歌曲十五章」 및 관련 작품에 대하여」, 신경숙 외, 앞의 책, 2007; 「옥소 권선의 한역시조 「翻老婆歌曲十五章」을 통해 본 기녀 可憐의 내면 의식」, 신경숙 외, 앞의 책, 2009.

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옥소의 기몽작품은 이처럼 그의 일탈적 내면풍경 내지 욕망까지도 담아내고 있으며, 이로부터 꿈을 통해 한 명의 비근한 凡人으로서 옥소를 만나게 된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꿈이 눈을 잡기도 한다.

> 갑술년(1754) 6월 11일 새벽 꿈에 홀연 서북쪽 구름 밖에서 여럿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올려다보니 색동옷을 입은 仙童 수십 명이 진시황과 한무제를 모시고 앉아 깔깔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저 선동들이 어떤 일로 나를 비웃는 것인지, 다른 것에 웃고 있는 것인지 괴이쩍어 하고 있었다. 갑자기 환곡을 독촉하는 아전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 나는 몹시 걱정하며 안절부절하였다. 느닷없이 한 大佛이 뒷산에서 나타나 윗마을 어귀의 돌 위에 앉아 여러 小佛들에게 천 명의 나졸을 불러오라 분부하였다. 이어 "너희들은 빨리 가서 각자 쌀 한 석씩을 지고 오라!"라고 하니, 순식간에 가져와 앞에 두었다. 대불은 이것을 가져다 나에게 주며 환곡을 갚으라 하였다. 그러면서 "공은 사양하지 말라. 관아에서 욕을 당하느니 나와 연을 맺는 것이 낫소."라 하고는 일어나서 가버렸다. 나는 이를 아이에게 주며 "寒泉과 桂山에 주어 나누어 납부하여라. 그러고도 700여석이 남을 터이니 내년부터는 너희들 모두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 하였다. 잠을 깨 일어나서는 기이하게 여기며 시를 한 수 지었다. (후략)[44]

초반에 선동과 진시황, 한무제 등이 등장하여 이목을 끌어당기는데, 정작 눈을 사로잡는 것은 꿈의 뒷부분이다. 옥소는 인간계 너머에 있는 신비로운 존재를 접하게 되었으나, 환곡을 받으러 아전이 곧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완전히 지워진다. 그리고는 번민에 휩싸여 초조해 하는데, 그때 갑자기 부처가 나타나 신통력으로 1천석의 쌀을 모아 건네주었다는 내용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쌀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도 700여석이 남아 앞으로도 모두 걱정이 없으리라 하는 그의 말이다. 환곡미를 갚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한두 번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스트레스를 주던 것이었음을 보

44) 「夢記_52」(⑨雜錄一/⑯推命紙). "甲戌六月十一日曉夢, 忽聞衆笑聲於西北雲外, 仰瞻, 彩服仙童數十, 侍坐秦始皇・漢武帝而啞啞. 我怪彼仙童何事笑我耶, 笑他耶. 俄聞催糧之吏將到, 我甚愁悶不已, 忽然一大佛, 自後山出, 坐上村頭石上, 分付諸小佛呼來千卒而曰: "爾亟去而各負一石米而來!" 俄頃而來, 置於前, 佛持與我以償糧, 曰: "公無辭焉. 與受辱於官府, 寧與我作緣." 遂起而去. 我與兒子, 曰: "與寒泉桂山而分納之. 尙餘七百餘石, 明年以後, 汝輩皆當不憂矣." 起而異之, 題有一詩. (…)"

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기실 지방 양반의 환곡으로 인한 낭패는 「兩班傳」이라는 소설로 그려질 만큼 당대 만연했던 문제 중 하나였다. 옥소 또한 그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인데, 이러한 꿈은 그가 생활인으로서 직면했던 고민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옥소의 기몽작은 일상적 기록 태도로 말미암아 그의 일상을 이루었던 다단한 관심과 심리, 또 고민을 흥미롭게 포착하고 있다. 여기선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는 데 그칠 수밖에 없지만, 이 말고도 뜻밖의 내용으로 그의 심사와 지향을 엿보게 하는 꿈들은 더 많이 산재해 있다. 이에 대해선 차후 보다 초점화된 논의에 미루어 두기로 하고,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옥소 기몽문학의 다채로움을 조망해보자.

다시 떠올려야 할 것은 그가 전 생애에 걸쳐 꿈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착안하여 그의 기몽작을 시간의 축을 따라 벌여 놓고 보면 그에 기록된 꿈들은 그의 생평과 흥미롭게 조응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이로부터 그의 기몽문학은 또 하나의 층위에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옥소가 관례를 행했던 16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기록한 것을 보면, 100장 높이의 대에 뛰어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단 뭉치를 받는 꿈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때의 몽경을 잊을 수 없었던지 그림으로 그려 「화몽」의 첫 장에 올렸다. 이 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 천부적인 것이라 자부하는 그의 자신만만함이다.[45] 근거는 『옥소고』 내에서 찾을 수 있다. 54세 때 지은 「自述年紀」에서 옥소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적고 있다.

> 6세에 처음 史書를 배우고 7세에 시구를 지을 줄 알았다. 尹以健, 禹弘成 두 공과 蔡頤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다. 나의 총명함을 믿고 학업의 과정을 열심히

45) 이 작품을 두고 안세현은 "세상을 향한 옥소의 장대한 포부가 담겨" 있다고 논급한 바 있다. 또 그는 「화몽」에 수록된 꿈들 가운데 세 작품을 선별하여 옥소의 생애와 관련지어 그 의미를 탐색하였는데, 꿈과 삶의 조응을 설득력 있게 해석하고 있어 경청할 부분이 있다.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권섭(1671-1759)의 「몽기」와 유경종(1714-1784)의 「의원지」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104-111면 참조.

> 하지 않았으나 10세에 문리가 통했다. (…) 南學에 들어가 童製를 보면 그때마다 珠點이 가득하여 上上이 아니면 上中을 하였다. (…) 일찍이 저포와 六博의 놀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단번에 그 기술을 깨쳤다. 11세 때 외숙과 함께 西學에 들어가 照訖講에 응시하였는데, 『소학』책을 박밀 듯 읽고 走筆로 講紙를 써내니 여러 시관의 칭탄을 받았다.[46]

보다시피 옥소는 자신의 영재성을 말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스스로 타고난 영재성을 믿고 과업을 충실히 하지 않았음에도 열 살에 문리가 통했다느니, 윷놀이와 博戱쯤은 한 번만 해봐도 묘리를 알았다느니 하는 서술에서 느껴지는 바이다. 이러한 면모는 『옥소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의 시고 첫머리에는 8세에 지은 시부터 10대 시절의 시가 여럿 실려 있다. 보통 취학기 내지 수학기 때의 작품을 이렇게 싣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옥소가 이 시기 자신의 작품들을 서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가능한 일일 터다. 그렇다면 꿈속의 삼층누각은 범인들이나 오를 수 있는 곳이요, 그 뒤의 누구도 넘보지 못할 100장의 고대에 뛰어 올라 홀로 하늘이 내리는 비단을 받는다는 꿈은 이러한 그의 자의식을 채우고 있는 당당한 자부심이 형상화된 것이라 함이 합당할 것이다.

이 뒤로도 그가 살아가면서 마주했던 국면과 굴곡과 흥미롭게 조응하는 꿈은 이어진다. 많은 꿈들을 그의 생력이나 처지와 연동시켜 해석해볼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은 소위 遇人型[47]의 기몽작들이다. 옥소는 백부 權尙夏, 장인 李世弼, 외숙 李宜顯 등을 비롯한 가족・친지들로부터 鄭龍河, 李秉常, 李秉淵 등의 여러 동료・친우들, 또는 金昌翕이나 宋時烈처럼 학적 숭모의 대상들까지 대단히 넓은 인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치르거나 멀리 사

---

46) 「自述年紀」(5)墓山誌二). "六歲始學史, 七歲知綴句, 就學於尹珍山以健・禹察訪弘成二公及教官蔡公頤之門, 自恃聰明, 不甚程課, 而十歲文理通. (…) 入南學童製, 輒珠點滿篇而爲上之上中. (…) 嘗以樗蒲・六博戱試之, 一着知其術. 十一歲, 與內舅入應照訖講于西學, 快讀小學書, 走筆書講紙, 爲諸試官嘖嘖之稱."

47) 필자는 전통시대 몽기에 대해 내용에 입각한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여 크게 우인형, 공간형, 예징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을 상론한 바 있다(졸고, 2020, 76-125면). 참고로 옥소의 기몽문학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형별 접근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차차 밝혀가기로 한다.

행길에 오를 때 그에 대한 마음이 꿈으로 표출된 사례들이 여럿이요, 또 세월이 흘러 이들이 작고한 뒤 꿈을 통해 그들을 만나며 그리움을 되새기는 것도 일일이 거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48] 그런가하면 40대 중반 이후 그동안 생활하던 서울을 완전히 떠나 본격적인 향촌생활을 하며 시문 창작에 더욱 매진했다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꿈들도 더러 있다. 앞서 보았던 별서를 찾는 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요, 말년에 이르러 詩鬼를 만나거나 시를 많이 짓는다고 추포령이 떨어지고 유배를 가게 되는 등의 꿈들[49]도 그의 삶과 활동의 궤적이 照射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 가운데 죽음을 앞둔 그의 몽경은 따로 톺아볼 만하다.

장삼에 높은 고깔 쓴 이들로 누각 북적이고	長衫嵬弁滿橫樓,
또 높은 당채 채우고 장실도 정신없어라.	又滿高堂丈室悠.
곧 무슨 일인지 천 사람이 곡을 하는데	卽是何徵千哭泣,
서쪽 하늘에서 반혼주가 나오네.	西天中出返魂舟.
내가 와서 한번 소리치니 온사람 흩어지고,	吾來一喝人皆散,
중들 또한 어지러이 정신없이 내닫는다.	僧亦紛紛走不休.
불탑 위에 삼존은 황급히 내려와 엎드리고	榻上三尊趨下伏,
신선들 줄지어 앉은 위로 해 떠 있구나.	神仙列坐日輪浮.[50]

그가 죽기 세 해 전에 지은 기몽시이다. 몽후작이면서도 꿈에 대한 반응이나 후감 등은 전혀 없이 꿈 내용만 담아내고 있어 述夢의 속성이 강한 작품인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눈을 잡는 것은 返魂舟라는 시어로, 곧 혼을 다시 태워가는 배이다. 시에 묘사된 꿈속 정경이 그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뒤로 옥소가 나타나 일갈하자 사람들과 중들이 흩어지고 부처도 상에서 내려와 부복하는 가운데 신선들이 열좌해 있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로부터 죽음을 대면하는 그의 태도와 자의식을 읽어낼 수 있

48) 이러한 작품들은 일일이 거론하기보다, 부록으로 제공하는 작품목록에 주요한 내용표지를 밝혀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49) 「기몽_30」, [부록1]의 106, 107번 작품.
50) [부록1]의 75번 작품.

다. 이 꿈을 꾸고 12일이 지나 옥소는 옥소산 산신령이 자신을 찾아오고 이미 죽은 노첩[51]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꾸기도 한다.[52] 꿈속에서 처음에는 저승사자[冥府差使]인 줄 알았다 한 것이나, 이어 만난 노첩이 지하세계에서 있을 반려를 얘기하는 등으로부터 이 꿈이 죽음과 긴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죽음의 심상이 드리운 기몽작은 몇몇 더 찾아볼 수 있는데,[53] 이들 또한 옥소의 삶의 한 구간을 조영하는 꿈이라 할 것이다.

한편 옥소의 기몽작이 가진 내적 자질로부터 그 폭넓은 스펙트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또 있다. 바로 자신의 꿈을 문학적으로 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서 작품의 현황과 내역을 살펴보며 잠시 언급한 바와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그가 꿈을 기록하는 일차적인 지면이 「몽기」의 「기몽」 부분이었으며 여기서 다시 흥미로운 꿈들을 뽑아내어 그림을 붙이거나 완성도 있는 글로 다시 써서 만든 작품들을 2차 결과물이라 칭했던 대목 말인데, 여기서는 작품의 질적 차원에서 논급할 만한 지점을 간단히 부언해두기로 한다.

돌아보건대 옥소는 「몽기」를 비롯해 거개의 기몽작을 꿈을 기록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한다.[54] 하여 꿈에 대한 그의 반응이란 간단하기 그지없으며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면모는 시와 산문을 가릴 것 없이 넓게 감지되는 것인데, 그런 중에 옥소는 이와는 또 다른 질감으로 몇몇의 작품을 완성하기도 한다. 잡저에 실려 있는 「題夢讖後」나 「記夢」, 「기몽」에 수록된 「記夢說」이나 뒤에서 볼 '九夢一女', 「화몽」에서 '대운루' 같은 작품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은 전대에 이미 확립되었던 몽기의 양식적 정형[55]을 비교적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작품들로, 꿈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51) 여기 노첩이란 15세에 옥소의 副室이 되어 60년을 함께 산 이씨부인을 칭한다. 그녀는 옥소보다 3년 일찍 죽는데, 그때가 바로 이 꿈을 꾸기 직전이다. 1756년 10월 죽음의 심상이 드리운 두 편의 기몽작이 있는 것은 일평생을 함께 했던 그녀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참고로 옥소는 두 명의 정실이 있었는데, 초취는 옥소 나이 25세에, 재취는 59세에 먼저 작고하였다.

52) [부록1]의 77번 작품.

53) [부록1]의 25, 85, 95번 작품 및 「기몽_51」 등이 죽음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54) 「화몽」에 실려 있는 작품들도 '글' 자체만 놓고 보면 「기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단형 몽기에 해당하며 일차적 기록물의 성격이 강하다. 앞서 현황에서 「화몽」을 2차 가공물로서 언급한 것은 그림을 곁들였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말이요, 이 부분에서 논란하는 것은 글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면밀히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정서적 반응, 감상, 나아가 사유의 전개 등을 後記로서 붙이고 있다. 이로부터 획득되는 문학적 완성도와 또 다른 차원의 미감은 여타의 일차적 꿈 기록과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면모는 옥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꿈을 문학작품으로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꿈을 기록함에 있어 시·문을 아우르는 양식적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함께 기억해둘 만한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즉 그의 일상까지 아우르는 내포의 다채로움, 그의 삶과 조응하는 시계열적 다층성, 그리고 글로 갈무리하는 방식의 다기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옥소 기몽문학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그것은 각 층위에서 감지되는 폭넓은 반경이 직조해내는 입체적 스펙트럼이다. 이로 말미암아 옥소라는 한 개인 또는 문인의 안팎을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또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꿈 그리고 그로부터 일군 그의 기몽문학이라 하겠다.

2) 성취의 배경과 독보성

살펴본바 옥소의 기몽문학은 양과 질 양면에서 대단히 돌출적이다. 한 개인의 이러한 성취는 전후의 우리 문학사에서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성취를 추인했던 동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옥소 자신의 꿈에 대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관심,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문필활동을 영위하는 주요한 질료로 섭취하는 태도를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몽록의 존재가 이를 증언해주고 있거니와 주변 문인들과 기몽작을 빈번하게 주고받았던 사실로부터도 이를 읽어낼 수 있다. 옥소는 19살이 되던 해 꿈에 친우들 8명과 동해 바다 한가운데 솟은 바위 위 정자에서 노니는 꿈을 꾼 뒤 이를 한 편의 산문으로 기록하고 시를 붙인 다음 꿈에 나왔던 이들에게 보내며 답시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이를 가지고

55) ‘도입-술몽-후기’의 세 구성요소로 구조화된 몽기의 정형에 대해서는 앞의 졸고, 2020, 65-76면 참조.

〈奇勝帖〉이라는 이름의 詩畵帖[56]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붙일 글을 청하기도 하는데, 이에 응수해준 시문들이 『옥소고』에 수록되어 있다.[57] 곧 옥소가 20대부터 기몽작을 교유의 매개로 삼았던 모습을 확인하게 해주는 자료들이다.

이 밖에 옥소의 기몽시 가운데 시를 써서 꿈에서 본 그 인물에게 부치거나 보여줬다는 언급이 붙은 사례가 종종 보이는 것,[58] 주변인들의 작품을 모아둔 「朋友唱酬」에서는 옥소가 보내온 기몽시를 받은 주변인들이 답으로 보낸 차운시들이 더러 보이는 것[59] 또한 마찬가지의 함의를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옥소가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에까지도 유다른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손자의 꿈을 써서 문집에 넣어둔 것이나, 가장 절친했던 친구 鄭龍河가 죽은 뒤 그의 형 鄭龜河의 꿈 이야기를 듣고 완성도 있는 산문으로 만든 「聖則夢說記」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뿐 아니라 남의 꿈 이야기를 소재로 시를 짓거나 아예 代作을 해주는 사례까지 발견할 수 있다.[60] 그가 속한 집단에서 기몽문화를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메모광에 가까운 그의 성격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가 지은 자전적 성격의 글 「述懷詩敍」에서 한 대목을 보인다.

> 감영과 府, 郵, 鎭을 구경한 것이 무릇 182군데이지만 고을의 관장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방문하지 않았다. 서원에 배알한 것이 77번인데, 석전에 참석한 것

56) 종래의 연구에선 이 〈기승첩〉과 「화몽」을 구분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진 바 있는데, 이 둘이 별도의 소작임을 논증한 바 있다. 졸고, 2021, 472-474면; 참고로 「화몽」의 '海島別墅'가 〈기승첩〉의 그림과 내용을 옮긴 것이다.

57) 『옥소고』 11筆札一, 314-332면에 수록된 10편의 글이다. 참고로 이들은 '몽화 관련 자료'라는 제하에 묶여 소개되기도 하였다(신경숙 외, 앞의 책, 2009, 301-319면).

58) [부록1]의 9, 10, 23, 27, 34, 39, 47, 64번 작품.

59) 「次調元夢作」, 「次調元記夢中語寄詩韻」(이상 10朋遊唱酬二/16朋遊唱酬二), 「次記夢作」(10朋遊唱酬三/16朋遊唱酬二) 등이 대표적이다.

60) [부록1]의 4, 13, 17, 24번 작품과 「夢詩記」(4文一)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몽시기」는 제천본 10朋遊唱酬二 및 문경본 16朋遊唱酬二에 수록되어 있는 「庚子九月在完山府之得月堂, 小晦夜夢, (후략)」이라는 제목의 시와 같은 내용이다.

> 이 8번이고 執綱이 된 것이 27번이고 11번의 연회와 樂에 참석하였고 조련하는 모습을 구경한 것이 4번이었다. 경향의 노소와 귀천을 구별 없이 수천수만 명을 아는데 담박하고 우아한 선비를 본 것이 6번이고, 뜻이 크고 궤이한 행적을 보인 사람이 7명이고, 고승과 이인을 만난 것이 12번이고, 기재와 소객을 접대한 것이 24번이었다.[61]

보는 바와 같이 옥소는 자신의 행차와 주요 사건을 정확한 숫자와 함께 열거하고 있다. 이는 이어지는 단락에서도 동일한데, 이 글을 지을 시점이 54세임을 감안하면 이를 그저 특출난 기억력 덕분이라 치부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일이 있을 때마다 죄다 기록을 해두었다가 후일 그것을 보며 정리해 지은 것이라 봄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유람을 다니면서도 때마다 끊임없이 글을 지어 다량의 기행록을 남긴 것이나 애초 65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옥소고』의 규모[62]도 그의 이러한 기록벽을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앞서 말했던 몽록의 존재이다. 꿈이란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지고 마는 것인바, 꿈에 대해 지대한 관심 그것만으로는 저 방대한 양의 기몽작을 생산할 수 없다. 기억에 남는 꿈을 꿀 때마다 종이에 기록하여 별도로 보관해두었다는 옥소의 고백에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실 그의 오랜 기몽습관을 가능하게 했던 밑면에는 그의 기록벽이 있었던 것이다.

옥소가 이룩한 기몽문학의 성취란 저 둘의 지속적인 결연으로부터 배태된 것이라 할 것이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그의 유례를 찾기 힘든 성취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상기해야 할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그의 다대한 관심이다. 百趣翁이라는 자호가 말해주듯 그는 다양한 분야에 조예와 취미를 갖고 있었다. 한문과 우리말을 넘나드는 문학적 창작열은 물론 회화, 음악, 推命, 堪輿, 衣制, 探勝 등 그의 문화적 관심과 예술적 지향은 실로 다방면을 향해 있었다. 화가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꿈을 시화첩으로 제작하거나

---

61) 「述懷詩敍」(⑤墓山誌二). 見營·府·郵·鎭, 凡一百八十二, 而非親懿, 則不入. 拜書院凡七十七, 而參釋菜八, 爲執綱卄七, 十一赴宴樂, 四觀組練. 知京鄕老小貴賤, 摠數千萬, 而覩恬雅之士六, 狂詭之客七, 逢高僧異人十二, 接奇才騷客二十四. 번역은 신경숙 외, 앞의 책, 2007, 270면의 것을 준용하였다.

62) 최호석, 앞의 글, 2007, 22면 참조.

더 확장시켜 수십 폭의 그림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등의 돌출적인 시도는 이러한 폭넓은 문화예술적 경험과 소양이 첨가되며 가능했던 것이다. 요컨대 꿈에 대한 지대한 관심, 이를 글(감)으로 승화시키는 기록벽, 활발한 문화예술적 창의성, 이 셋의 생산적인 조우야말로 옥소의 기몽문학의 독보적인 성취가 탄생하는 배경이라 하겠다.

이러한 창작 저변 위에서 옥소는 여타의 기몽문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유한 성격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널리 알려져 있는 「화몽」이 이러한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가장 주목되는 성과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에 대해선 이미 많이 거론되었던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주시해야 할 것은 「기몽」의 20번째에 놓여 있는 글이다. 이 글은 「몽기」뿐만 아니라 그의 기몽작품 전체에서도 분량이 가장 긴 축에 속하는데, 옥소 나이 55세 때부터 60세에 이르는 6년 동안 9번에 걸쳐 한 여인을 반복적으로 꿈에 본 일을 적은 것이다. 원래는 제목이 따로 없지만 편의상 '九夢一女'라 명명하기로 한다. 대강의 골자는 이러하다.

처음에는 28, 9세쯤으로 보이는 수척하고 남루한 한 여인이 자신을 위해 등잔을 지키며 홀로 방에 있는 꿈을 꾼다. 그 뒤로 이 여인을 몇 차례 더 꿈에서 만나게 되는데, 항상 한 칸짜리 띠집에 있다가 자신을 보면 기뻐했으나 자신은 무심하게 대했다 한다. 다음 꿈에선 두세 살쯤 되는 소녀가 나타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떠난다. 이로부터 꿈을 꿀 때마다 상황이 바뀌는데, 그러는 사이 그녀의 이름이 '玉環'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인이 불쌍하게 느껴져 데리고 와 정을 나누며 대화를 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처음 보았던 소녀는 꿈이 계속되며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일곱 번째 꿈에서는 갑자기 여섯 살짜리 사내아이로 등장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녀와 자신 사이에 아들 넷이 있었다는 꿈을 꾸기도 한다. 아홉 번의 꿈 이야기를 모두 적은 옥소는 이 꿈들의 기이함과 괴이쩍음을 되새기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문하는 후기를 붙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꿈, 그

러는 사이 현실의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꿈속의 시간, 하나로 연결되지만 한편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 여기에 옥소의 의아한 태도가 어우러지며 이 글은 독특한 긴장과 몰입을 자아낸다. 이 글을 쓰고 6년이 지난 1756년에도 이들 모자를 꿈에서 보고 또 하나의 몽기를 지은 바 있어[63] 더욱 흥미를 끄는데,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는 꿈을 12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꾸었던 셈이다. 이를 토대로 옥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구미가 당기는 주제이지만, 여기서는 이 작품이 보여주는 옥소 기몽문학의 독보적 성취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눈을 붙여야 할 것은 여러 꿈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부분이다.

돌아보면 옥소의 몽기에는 이렇듯 연쇄적 꿈을 기록한 것이 종종 발견된다. 「몽기」의 첫 번째 작품인 「기몽설」도 그 일례로,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3번의 꿈을 꾸고 이를 한 편 글로 갈무리한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여러 경로의 분석을 허락하지만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그 창작의 기제이다. 수년간에 걸쳐 하나의 서사로 이어지는 꿈을 상세하게 적어내는 것은 기억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는 별것 아닌 듯해도 일단 적어놓고 후일의 증험을 기다린다는 문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꿈에 대한 유다른 관심과 꾸준한 기록벽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한 편의 글로 얽어내는 옥소의 문예적 감각과 재능이 더해졌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를 옥소 기몽문학의 독보로 꼽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작품이 몽기의 전통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이다.[64] 그도 그럴 것이 몽기를 남긴 문인들은 대부분이 한두 편의 작품을 썼을 따름이고, 많다 해도 10편 이상을 쓴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이는 보통의 문인에게 꿈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행위이며 일상적이지 않은 것임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위와 같은 작품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연쇄적 꿈을 토대로 작성한 이 작품은 옥소가 이룩한 기몽문학적 성취의 저변과 독보성을 단적으

63) 「기몽_54」.

64) 옥소 외에 내용이 이어지는 복수의 꿈으로 몽기를 지은 예는 成悌元의 「九龍淵神夢記」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따름이다. 다만 이는 하루 상간에 두 번의 꿈이 연결된 것이라 '구몽일녀'과는 또 차이가 있다.

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4. 맺음말

이번 논의는 애초 옥소의 문학세계에서 주요한 질료로 지목되는 꿈에 대해 그 반경과 무게의 실제를 규명하고자 기획하였다. 이에 현전하는 『옥소고』를 전수 조사하여 '記夢'의 속성을 가진 작품을 모두 찾아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지형과 특질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옥소가 남긴 기몽작품이 시와 산문을 아울러 235편에 이르며, 상당한 편수만큼 기몽문학의 여러 양식을 두루 구사하여 꿈이라는 독특한 경로를 통해 옥소의 일상과 관심, 지향과 내면 등을 흥미롭게 담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기몽작품을 통해 옥소라는 인물의 내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본 것, 또 이러한 유례없는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을 조망해본 것 등도 이번 논의의 중요한 수확이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지평의 연구시야를 열게 하는 성과라는 점을 특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거개 「화몽」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다면 이번 시도는 옥소의 기몽문학이라는 건물 전체의 조명을 켠 것이다. 옥소의 꿈 관련 작품들에 대한 논의가 적잖이 있었음에도 이번 논의를 초탐이라 이름한 이유이다. 다만 본고의 한계 또한 명백하다. 총체적인 규모와 구조를 확인하고자 통람적 시야를 취하다보니 개별 작품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심층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상론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국면들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동시에, 이번 논의를 통해 구축한 옥소 기몽문학의 전체 지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옥소의 꿈과 문학, 그 흥미로운 결연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다채로운 연구를 추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

[부록1] 『옥소고』 소재 기몽시 일람

- 몽후작은 대체로 꿈을 꿈 뒤의 후감을 시화한 것이며, 꿈 내용을 서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에 대해서만 '술몽'이라는 표지어를 붙였다.
- 몽중작은 꿈에서 지은 시를 깨고 나서 적은 것이며, 꿈에서 얻은 시의 일부에 나머지를 채워 완성한 작품의 경우에는 '주성'이라는 표지어를 붙였다.

연번	제목	내용표지	구분	편제
1	記夢示人	鄭龍河, 鄭龜河, 朴 瑞, 金子敬, 權明仲, 成達卿, 洪士駿, 趙子以	몽후작	1詩1 12詩1
2	夢事極異, 起占一詩, 示載文兄, 要和.	정용하	몽후작	1詩1 12詩1
3	夢得'無限春風別故人'一句, 朝來開牕, 杏花盡落, 桃花新開, 足成迎·送兩絶.		몽중작_足成	1詩1 12詩1
4	欲見德裕山, 到喚仙樓, 敗興徑還, 宿海印寺之窮玄堂, 聽性悟說夢, 悵然有詩.	승 性悟의 꿈	몽후작	1詩1 12詩1
5	咏鴈 夢中作		몽중작	1詩1 12詩1
6	石室感懷	석실서원	몽중작_주성	1詩1 3詩上 12詩1
7	烏甲午夢, 逢一丈夫, 劇說春秋大義. 余書贈'沛公劒·宣尼書'兩句, 而猶有上二字, 未及下, 傍有一人, 遽曰: "蠹餘." 因此驚覺, 則村翁問童子曰: "大麥幾許刈來乎?" 刈乎之語, 與蠹餘彷彿, 故其因聲感夢如此, 可怪.	춘추대의 소리의 감몽	몽중작	12詩1
8	十月廿二日夜夢, 淵翁復臨鏡湖. 時月色如晝, 湖天澄闊, 跨出白騾, 指月岳山去, 約宿寶光菴, 未首路而悟, 只此一身耿耿臥寒齋中矣. 仍枕上吟得一絶, 紀之. 明發理來, 又依俙若一夢, 卽知此詩亦夢中作也. 瞻望悵然.	金昌翕	몽중작	1詩2
9	夢罷, 寄呈舅氏燕山行中.	李宜顯(외숙)	몽후작	1詩2
10	癸卯八月十四日夕, 小子燮夢與諸生講學, 有云: '做時不如說時, 善端兼有惡端.' 我舅氏在傍, 書示一句, 曰: '維一維精執中, 仰瞻樂有堂寬.' 樂有, 卽奉安外王考·伯父二先生遺照之堂也. 其辭微, 其志切, 有足以感發而警動之者. 述此一律, 寄呈舅氏座下, 以求其卒教之也.	이의현	몽후작	1詩2

11	舅氏遠謫, 經年而百罹, 餘生無計趨拜, 連日感夢, 詩以敍懷.	이의현	몽후작	1詩2
12	丁巳二月十四日, 夢見孔·朱畵像, 枕起感題.	공자·주자의 화상	몽후작	3詩上 12詩5
13	聽老妾說夢	노첩의 꿈	몽후작_술몽	12詩5
14	與時見雙說夜夢, 俱奇異可書, 書一詩.	時見	몽후작	12詩5
15	夢遊嶺東山海數十年而寤	산수유람	몽후작	3詩上
16	甲子六月十四曉夢, 方酹饗德性之妻. 我弟欲寄詩於其兄, 臨便苦吟, 我代題一絶. 起而書之.	權瑩(제)	몽중작	1詩8
17	聽魯佐權君說夢, 戲題一詩.	權魯佐의 꿈	몽후작	1詩8
18	夢有美道士, 來示一詩, 詩語未易解, 見漫爾. 次其韻.	도사	몽후작	1詩8
19	丙寅八月卄四日夜夢, 與亡弟談史, 到唐宋間一名臣賢而見疑處, 相對嗟噓. 將有遠行, 拜辭於外王妣, 則愍行邑之孤單, 擇兩傔而護去. 晦日之夢, 亡舅氏引喝聲而入來, 對話款穩, 傍有從弟. 今嶺伯逢一親舊人, 帖給百包牟, 余笑曰: "爾欲死耶? 爾手何故忽然如許大?" 與之胡盧, 悟來卽起, 題此一詩.	권영, 이의현 외조모, 종제	몽후작	1詩8
20	夢罷咄咄鄭參判	정참판	몽후작	2詩9
21	丁卯十月初三日, 早起岩村, 曉夢起書.	權尙明(부), 權煜(종형)	몽후작_술몽	2詩9 12詩9
22	丁卯除日, 曉起題夢.	大豕, 龍子	몽후작_술몽	2詩9 12詩9
23	夢與連原郵丞, 月夜對話娓娓而曰: "虎巖之詩, 初看再看而不知好, 三四看則絶佳矣." 看看, 非見在丞, 而南別提也. 書此一詩, 寄之.	연원우승(남별제)	몽후작	2詩9
24	十八歲稚族之虛荒夢事. 鹿川李相公坐箕營時, 綃面彩畵而送之, 叔姪幕裨之請. 蓮洞李丈赴海營時, 答以戲語而一併帶去. 此事何更見於今世? 可喜古人心腸.	친족 아이의 꿈	몽후작	2詩9 12詩9
25	大病中夢, 自天門, 錫以食物衣資, 又降珍劑, 又降百歲之衣. 生死感鏤一詩稱謝.	병환중, 天門 죽음의 심상	몽후작	2詩10 12詩9
26	十月廿五日曉夢, 迎哭閔兎山百亨喪行. 寤聞是日靷, 過水回路, 而畏寒未去. 感題一詩.	閔百亨	몽후작	2 詩10 12詩9
27	夢中, 書示金鳳彩, 曰: "天生烝民, 有物有則, 讀書而知其趣, 作文而知其規, 造次如是習與行成, 及其至也, 乃賢乃聖." 寤題一詩, 寄之.	金鳳彩	몽후작	2詩10
28	記夢		몽후작_술몽	2詩10
29	倣夢中詩體題七句	李普文	몽후작	2詩10
30	趙濟博泰萬挽 夢作	趙泰萬	몽중작_주성	2詩10
31	夢作許多詩篇警絶, 寤來, 似若瞭瞭, 把筆而坐, 終不記存一句, 可知老氣無奈何, 有題.		몽후작	2詩10

32	辛未三月十七曉夢, 農岩先生臨到, 披示一軸, 使題之. 余卽橫竪爲說, 揮筆爛然, 夢寤而盡忘之. 明發起坐, 一用其語意而述之, 題用長短句法, 詩爲五言四句, 其下之評, 卽四字三句也.	金昌協	몽후작	2詩10
33	夢與金台德裕·李台汝五, 對語而題詩. 又拜龜川先生, 講說大學經一章. 寤來, 怳然無以爲心, 述此一詩.	金有慶, 李秉常, 李世弼(장인)	몽후작	2詩10
34	辛未四月廿七夜夢, 與魚台景雨, 對坐題一詩. 于書案兩頭曰: '星羅幾點分區域, 花列千般一化權.' 問曰: "此理知乎?" 曰: "知." 寤而卒篇, 遙寄之.	魚有龍	몽중작_주성	2詩10
35	五月初吉夜夢, 三淵公臨到, 題一絶, 問曰: "第四句是佛經語乎?" 曰: "霎然, 有聲颯然. 忽然, 有影優然. 俄然, 一小佛出立空中." 詩則若記不記. 起坐, 書此詩.	김창흡	몽후작	2詩10
36	尹舜卿·李敬長迎行送行之事, 入於辛未五月旣望之夢, 夢起題詩.	尹舜卿, 李敬長	몽후작	2詩10
37	壬申六月廿二日曉夢, 與金堯夫莘老兄弟, 終日穩話如平昔. 仍入拜祠宇於百花萬柳中間, 退而鼎坐, 莘老取我鶴氅衣, 盡拔黑緣. 俄而, 其諸子以新件黑緣, 換呈之, 蓋嫌其內之多紅色, 而欲相換矣. 我笑而許之, 未了事而便寤, 有一詩.	金相履(莘老) 형제	몽후작	2詩11
38	壬申歲除前二日, 夢坐呂江, 賦詩一句, 起而足之, 以記其事, 以寄餘懷.	驪江	몽후작	2詩11
39	癸酉上元夜夢, 與莘翁對坐, 盈德之淸心樓, 翁咏出一句, 我知翁之起自九原來. 寤卽足而聽之, 起坐思之, 又是夢也. 不勝感愴, 書示其子. 子文君, 君必涕淚看之.	김상리	몽후작	2詩11
40	夢起作		몽후작	2詩11
41	夢起		몽후작	2詩11
42	生年五入金剛, 而夢上望高萬景臺而賞楓, 又已再矣. 今夜之夢, 又上下於望高之臺, 雷雨一聲, 見白華庵前刻石之佛, 非三而二, 松蘿之庵, 非上下而一區也. 有二句詩, 寤而記之.	금강산	몽중작	2詩11
43	甲戌二月廿六日曉夢, 騎馬江峽, 入新庄隘陋, 更欲胥宇於稍下村中, 與張姓爲鄰, 乘舟而渡. 行中從人, 叱責船工不能鋪新席而接待, 船工曰: "吾已出入水宮, 助成爾主之役, 勿須慢我!" 又多云云. 從人曰: "爾化兎而爲身乎?" 曰: "非兎, 何以出入乎? 出水, 我耳便寤." 寤題二詩, 記其語意.	집터 물색 수궁의 토끼	몽후작	2詩11
44	甲戌三月初五日曉夢, 鄭文煥在旁舍, 命在頃刻, 忽出皐復聲. 余作挽詩, 卽忘之, 更理之, 書一詩于紙. 翌日起坐, 都是夢也. 半生所愍於心者, 乃發於夢, 起坐又作一詩, 斯人之愚, 曷其瘳矣?	鄭文煥 (정용하 아들)	몽중작 1수 몽후작 1수	2詩11

45	甲戌三月廿日, 與陽山大師肅文, 同與宿於雙溪丈室. 夜夢, 李光州·趙僉知曰: "師是當時之崔琢也." 出看, 師坐在好桑樹上, 仰問: "師之俗姓曰崔, 名琢?" 寤而攪之, 伊李非崔, 李知而趙不知, 是何兆也?	李光州, 趙僉知	몽후작	2詩11
46	夢坐小壇, 淡白微紅之花, 四周爛發, 起而有題.		몽후작	2詩11
47	感夢有題, 寄示慶尹.	歎老	몽후작	3詩12
48	記夢【十六句】	李秉淵, 김신로	몽후작_술몽	3詩12
49	又【十六句】		몽후작_술몽	3詩12
50	甲戌臘月初七之夢, 聞家弟淸隱君讀書聲, 開戶視之, 已讀上算三下算三, 而讀曰: "誠意體行之遍, 可謂孝乎阿?" 我曰: "阿吐非矣. 讀以底吐." 旁有人曰: "公不信我伯公之言非乎?" 弟亦領可. 起題一詩.	권영	몽후작	3詩12
51	元日曉夢, 起書一詩, 記之.	경승처	몽후작_술몽	3詩12 12詩12
52	乙亥正月初十日夜夢, 坐名山別業, 忽然寤齋趙判書, 晤語哦詩, 極從容謂: "宿他村." 而起. 寤來悵然, 題一詩, 記其事.	趙正萬	몽후작_술몽	3詩12 12詩12
53	記夢	괴물 (石蛇, 短木)	몽후작_술몽	3詩12 12詩12
54	乙亥二月初八日夜夢, 淸風府使不知何姓名來坐, 授挾長之牋, 請書凌江梗槩. 我立書之, 曰: "凌江洞中有我淸如許亭, 所見不過綠水靑山·蒼松交柯, 淸籟生其間, 所坐石臺與彼岸之壁對立, 中成一畝澄泓. 其上數曲白石淸流, 明新奇絶, 非萬瀑洞中所有, 各有小亭, 而皆毁云云." 以下不記. 是皆平日之所言, 心甚異之, 起書一詩.	청풍부사 능강동	몽후작	3詩12 12詩12
55	夢起, 聽水澖志.	산수경승 수호지	몽후작	3詩12 12詩12
56	夢往金龍大乘寺, 各有一詩. 寤來不記, 起坐思其命意, 題之.	대승사	몽후작	3詩12 12詩12
57	乙亥六月廿一日曉夢, 觀復金相公來坐, 有三娼婢列侍. 我曰: "何不呼夜娘來? 何知黃橘之投不及於杜牧之之車乎?" 俄而夜娘來, 我笑曰: "爾不干我唱一詞." 曰: "南山高此水永, 夜凉天亦悠." 娘繼之曰: "請君安坐且安坐, 妾心如水西北流." 我又繼之曰: "佳人莫唱梨園曲, 桂樹山中聊淹留." 唱罷, 相公與諸娘, 皆無處. 夢寤而見壁上題一詩, 末一句黑昧未辨, 我起而足之, 是亦夢也.	金崇謙 기녀 夜娘 가곡창	몽후작	3詩12 12詩12
58	理夢多悔, 又題詩.		몽후작	3詩12 12詩12

59	夢罷有吟	손자	몽후작	3詩12 12詩12
60	步松月影有吟, 乍睡有夢, 傍有人曰: “此詩好乎! 汝何爲之?” 起坐復書.		몽후작	3詩12 12詩12
61	夢乘虛舟	배	몽후작_술몽	3詩12 12詩12
62	午夢囈吟	자조	몽중작	3詩12 12詩12
63	乙亥十月初二日, 記夢有題.		몽후작_술몽	3詩13 12詩12
64	乙亥至月初十日夜夢, 往登金奉朝賀墓山, 讀碑文, 詠五七言二句. 悟來悵然, 依夢詩體成一詩, 寄示景留生.	金有慶	몽중작 1수 몽후작 1수	3詩13 12詩12
65	夢起笑題		몽후작	3詩13 12詩12
66	至月廿七夜夢作		몽중작	3詩13 12詩12
67	乙亥臘月十八日曉, 卞禮甫諸人, 來立于寒水齋庭前, 我出掛伯父先生畵像于齋之壁, 先已列掛尤翁及某某三像, 又展九曲圖. 又展別幅, 書曰: “模得七分悵. 今日之瞻仰, 列掛先生, 圖成九曲, 若當時之優游, 與同諸勝.” 忽轉輾而驚寤, 卽一夢也. 有一詩.	卞觀夏, 權尙夏(백부)· 宋時烈의 화상	몽후작	3詩13 12詩12
68	夢有府胥, 來傳僧將帖, 起坐笑題.	승장첩	몽후작	3詩13 12詩12
69	廿七之夢, 一人來示白沙翁碑銘, 復加五聯, 伯父文純公曰: “汝自燕中來, 此翁受胡爵事然否?” 我曰: “古人云: ‘觀大人, 可於有過中求無過, 不可無過中求有過.’ 其言是矣. 當以人求之, 是人豈有是事?” 伯父然之. 起坐, 書一詩.	권상하	몽후작	3詩13 12詩12
70	震應夢中來, 使我五押一翁爲詩, 起賦之.	權震應(從孫)	몽후작	3詩13
71	尤翁嘗擧似朱子梅館作而云云, 以嘲海峰却妓之詩. 今我之夢, 不呼喚而自來, 又自謝送. 寤來, 戲書一詩.	기녀	몽후작	3詩13
72	夢仰役奴二人, 來前納身貢, 我曰: “此規宜廢.” 仍微吟小絶. 傍有人喜之, 曰: “然矣.”	노비	몽후작	3詩13
73	丙子三月十一日夜夢, 天使出來, 方面而駁無鬚. 趙判書定而爲儐接, 余爲從事問年, 與余同花甲, 今八十六, 而韶顔如童子. 坐在靜室中, 索名畵名筆, 趙公出一帖, 而割出趙孟頫畵·褚遂良筆各一幅與之. 寤而又夢, 多少女人, 出自土中, 謂: “是高麗人李叔瓘女, 寃死而化出.” 掘之無數. 其傍竈下, 咳咳有聲, 掘之皆鮒魚, 愈掘愈多, 其旅不億. 是皆何兆也? 似皆有徵, 而終是春來亂夢耶? 一詩題之.	조정만 여인 붕어	몽후작	3詩13

74	丙子三月廿八日夜夢, 一宗室遺我眼鏡, 自上取見之, 曰: "吾曾見此, 是宣宗皇帝御物, 今歸於汝. 此某海上某名人所知, 可證之." 使人招之, 堅坐不來. 我咏一詩, 初曰: '獨立海中' 卽以不成語, 改以夫夫, 便寤.	종실 안경	몽후작	3詩13
75	十月十二夢	승려, 返魂舟 죽음의 심상	몽후작_술몽	3詩13
76	夢罷病起有吟		몽후작	3詩13
77	丙子十月廿四日曉, 轉輾一枕, 失睡而臥, 牕外一人, 低聲呼曰: "爲陪去百趣大監而來." 余曰: "吾非大監, 爾何冥府差使, 容易到我?" 對曰: "我非冥差, 玉所山靈也." 曰: "吾非大監, 大監名來亦何? 必卽去符到可行." 行時, 復來護我, 對曰: "我固誤到矣, 謹當退去." 余從牕隙而見之, 其人烏巾道服, 與一童子, 帶月而立, 儀貌楚楚, 可喜. 此似夢而非夢也, 逢見老妾而語此事, 妾曰: "此誠可愛人. 地下他日, 翁有佳伴矣." 忽知妾之爲已死人, 卽止不語, 此則夢也. 朝來起坐, 一一書以記之, 仍有一詩.	玉所山 신령 부실 이씨 죽음의 심상	몽후작	3詩13
78	丙子至月十一日夕夢, 眞是亭中坐, 一佛頭戴小塔, 曰: "有縫塔." 起坐, 題一詩, 歸此亭於雨花之僧.	부처	몽후작	3詩13
79	夢起, 寄魚崇政台案.		몽후작_술몽	3詩13
80	丙子至月十八日夜, 手寫座目一冊, 有詩, 舅氏曰: "末句宜曰獨留." 余曰: "獨無然矣." 起坐理之, 是一夢, 題一詩.	이의현	몽후작	3詩13
81	夢起聽僧話		몽후작	3詩13
82	夢有人, 携我坐一室. 時月色如晝, 梅花初發, 與數三長老, 從容話語, 兒輩讀書聲, 隱隱來入耳, 方喜樂不已. 忽然取如師, 被佛衣冠而來, 指曰: "彼名五雲臺, 可坐, 扶我而登." 登來, 如師已先坐上頭. 悟來, 依依如平日, 題此一詩.	승 取如 五雲臺	몽후작_술몽	3詩13
83	夢起, 喜欲狂, 有題.		몽후작_술몽	3詩13
84	夢臨滄海, 欲賦未賦.		몽후작	3詩13
85	丙子臘月廿日曉夢, 自書于紙曰: "一吸一噓, 一陰一陽. 一明一暗, 一晝一夜. 一伸一屈, 一生一死. 人生其間, 或脩或短. 玄男非夭, 玉所非壽. 莊周非昧孔仲尼, 康節已知周濂溪." 噫! 此何兆也? 豈因想耶? 末端一句, 似戲非戲, 似有微意, 我不知也. 起坐惝怳, 書此一詩, 付之壁上, 以待神詔.	생사의 원리 죽음의 심상	몽후작	3詩13
86	夢覺		몽후작_술몽	3詩13

87	丁丑正月初五夜夢, 余與人爭杷戱, 三投皆覆, 對局人曰: "卜云其吉允矣无咎." 余得兩匙筋, 擇其大而自取, 人曰: "公已有食神." 見載轎之船, 磨憂於淺水, 聲震天地, 習熟於耳而不驚, 人曰: "公之聲名, 將有聞於一世." 一族人棍打一族人於官庭, 人向余賀曰: "嫡庶之名分快定. 此君年少, 而大有功力於公家." 寤而書一詩.	점복가 윷점	몽후작	3詩13
88	夢作一句, 悟來足之.	이병연	몽중작_주성	3詩13
89	三月廿一日, 神勒寺夜夢, 與北伯對坐, 余書膽傍人一詩.	北伯	몽중작	3詩13
90	下山路, 將由於東海邊, 夢吟'滄波日出'四字. 起坐, 以大關嶺足之, 仍書三句, 成一詩.		몽중작_주성	3詩14
91	夢起		몽후작	3詩14
92	八月初吉夜夢, 有人來詠一句, 曰: '雙籬開發百年花.' 寤來, 足成一詩.		몽중작_주성	3詩14
93	夢作	後序) 수명 추가	몽중작	3詩14
94	十月廿五日夜夢, 到一山, 大瀑垂壁, 遊魚一隊, 潑剌容與於滾流之下, 題一詩, 氣字傍打二點, 改以己字. 寤而記之.	폭포	몽중작	3詩14 (詩15)
95	夢飛鶴來下, 笙簫在上.	죽음의 심상	몽후작	3詩14 (詩15)
96	夢作	함경감영 後序) 술몽	몽중작	3詩14 (詩15)
97	十二月初七日夜夢, 余出立庭除, 欲吸南草, 呼火來, 火散於廊外墻下, 或人來而火不來, 或火來而人不來. 俄而, 靑山守李仲受曰: "外軒在之水布, 可作玉所翁衣五領." 呼針手, 來卽三男傔而一女也, 取其水布之火浣者, 成二衣, 火燒之臭擁鼻. 寤來, 亦聞之, 問之僧, 僧皆不知. 余哦咏五律不已, 仲受曰: "何不題出?" 題出韻叶簾叶而對, 不成非律非古, 只是罔象之詩. 天明, 書之紙.	李鼎佐	몽후작_술몽	3詩14 (詩15)
98	述夢	惠國寺	몽후작_술몽	3詩15
99	夜夢, 過某邑, 恨未入拜大夫人, 人曰: "五寸親, 何繁?" 我聞之, 慨然曰: "五寸之上行與我, 親爲從兄弟. 又其上, 我祖之同氣也. 吾心與君輩異." 起坐, 題一詩.	오촌대부인	몽후작	3詩15
100	曉夢, 作儷語曰: "老夫知名, 男兒得意." 有一方伯, 擊節歎賞. 起賦一詩.		몽후작	3詩15
101	夢有題畵, 一句曰: '碧樹歸丹錦繡秋' 一源屬對曰: '靑天散月玲瓏夜' 我曰: "不及吾流動天機." 起而足之.	이병연 題畵	몽중작_주성	3詩15
102	李龍潭幼莘公, 忽來對坐, 室外有人, 咏過一句. 是一夢, 起而書此上句.	李幼莘	몽중작_주성	3詩15
103	夢起		몽후작_술몽	3詩15

104	辛丑八月十五夜, 與竹下子泛舟於江景南湖, 有聯句一絶. 今日是夜, 病臥江亭, 悵感成詩, 用當日之語, 次當日之韻, 不知冥中亦有一詠否. 少睡, 夢與竹下子, 泛舟哦咏, 亦知冥中果耿耿不已. 起坐, 又題一詩.	李琢玉	몽후작	3詩15
105	夢哭載文墓, 起題一辭.	정용하	몽후작	8雜著6
106	昨夢, 聖上以老臣多吟詩, 下拿推之命, 繼有南路之謫, 一詩謝之. 以詩被譴, 以詩謝恩, 可謂下愚不移.	시로 유배	몽중작	3詩15
107	昨夢, 聖上以老臣多吟詩, 必有害於精神, 下拿推之命, 又謫于靈光, 拜拜至恩, 一詩題之, 不可被謫. 後又題詩, 故更書長短一詞.	시로 유배	몽후작	8雜著6
108	夢作【半醒半囈而成此詩】		몽중작	3詩15
109	玉所翁贊 夢作		몽중작	15雜著
110	至月小望前夜夢, 應城主索.		몽후작	15私稿5
111	五十五疊 記夢		몽후작	15私稿5
112	宿陰城, 夢湖西.【去京師時】	호서	몽후작	15私集2
113	夢作一句, 覺後足成圓篇.		몽중작_주성	15私集2
114	夢遊家山		몽후작	15私集2
115	記夢	청룡검	몽후작_술몽	16歌曲

[부록2] 옥소 기몽문학 연대별 총람

- 제천본의 「夢記」(記夢+畵夢)는 『옥소고』 9에, 문경본의 「夢記」(記夢+畵夢)는 『옥소고』 16에 수록되어 있다.
- 「記夢」의 제목에 표기한 괄호숫자는 제천본 기준 작품 순서이다. 단 문경본에만 있는 작품에 대해선 대괄호로 문경본에서의 순서와 영인본 상의 면수를 함께 기입하였다.
- 「畵夢」은 이미 번역되어 출판된바 내용표지를 적지 않고, 작품 내에 있는 시의 숫자를 콜론 뒤에 표기하였다.
- 참고로 제천본 「畵夢」에서, '近壑新亭'(1752)과 '勝處奇情'(1754)은 그림과 글이 서로 바뀌어 편집되어 있다.
- *표시는 남의 꿈을 소재로 지은 작품이다.

시				연도	산문			
문경본	제천본	제목	날짜		날짜	제목	제천본	문경본
				1686	11.11	百丈高臺 : 1수	畵夢	畵夢
				1688	11.16	(3) : 장군, 正鬼 시구 (→「題夢讖後」)	記夢	記夢
				1689	8.1	海島別墅 : 1수	畵夢	畵夢
				1692	9.13	(4) : 김장백, 몽득시	記夢	記夢
				1693	1.28	(5) : 숭정제 위패 (→「題夢讖後」)	記夢	記夢
				1696 (26세)	4.21	夢筮		16 推命紙
						[3, 16 24면] : 노인, 괘		記夢
12 詩1	1 詩1	記夢示人	5.2		5.2	白玉溪 : 1수 (시고의 시와 동일)	畵夢	畵夢
12 詩1	1 詩1	夢事極異, 起占一詩, 示載文兄, 要和.						
				1697 (27세)	1.2	(6) : 절벽, 누각, 용 무늬	記夢	記夢
					5.21	(7) : 배, 침몰위기	記夢	記夢
					5.24	(8) : 천둥번개	記夢	記夢
					6.23	(1) 記夢說 : 윤돈, 송시열 (→「題夢讖後」)	記夢	記夢
					7.6	(9) : 기마, 청의동자	記夢	記夢
					11.7	(10) : 명 유민	記夢	記夢
					11.13	(11) : 이의현, 글자 새겨진 석판	記夢	記夢
					12.9	(12) : 오삼계, 피란, 의주부윤	記夢	記夢
				1702		(2) 聖則夢說記* : 정구하, 송시열, 별서	記夢	記夢

				1703 (33세)	1.3 3.24	(14) : 황룡 올라탐. 여인의 얼굴	記夢	記夢
					6.20	(13) : 돈화문, 공무, 감	記夢	記夢
				1706	12.7	海岸松林 : 1수	畵夢	畵夢
				1707	1.17	(15) : 이세백, 火筆 (→「題夢讖後」)	記夢	記夢
				1708 (38세)	1.24	(16) : 높은 누각, 조망, 몽작	記夢	記夢
⑫詩1	①詩1	夢得'無限春風別故人'一句, 朝來開牕, 杏花盡落, 桃花新開, 足成迎·送兩絶.						
					11.13	傍海古閣 : 1수	畵夢	畵夢
					11.30	兵營花樓 : 2수	畵夢	畵夢
⑫詩1	①詩1	欲見德裕山, 到喚仙樓, 敗興徑還, 宿海印寺之窮玄堂, 聽性悟說夢, 悵然有詩.*		1711 (41세)				
⑫詩1	①詩1	咏鴈 夢中作						
⑫詩1	①詩1 ③詩上	石室感懷		1712 (42세)				
⑫詩1		烏甲午夢, 逢一丈夫, 劇說春秋大義. 余書贈'沛公劒·宣尼書'兩句, 而猶有上二字, 未及下, 傍有一人, 遽曰: "盡餘." 因此驚覺, 則村翁問童子曰: "大麥幾許刈來乎?" 刈乎之語, 與盡餘彷彿, 故其因聲感夢如此, 可怪.						
				1717 (47세)	1.1	(17) : 방울 달린 앵무새	記夢	記夢
					1.2	(18) : 책상 위의 石鱗	記夢	記夢
	①詩2	十月廿二日夜夢, 淵翁復臨鏡湖. 時月色如晝, 湖天澄闊, 跨出白騾, 指月岳山去, 約宿寶光菴, 未首路而悟, 只此一身耿耿臥寒齋中矣. 仍枕上吟得一絶, 紀之. 明發理來, 又依俙若一夢, 卽知此詩亦夢中作也. 瞻望悵然.		1719 (49세)				
	①詩2	夢罷, 寄呈舅氏燕山行中.		1720				

				(50세)	9.28	夢詩記[代竹君作]* : 朴泰觀	4文1	
				1721	7.28	(19) : 경기감영의 비장, 이건명	記夢	記夢
				1723 (53세)	2.12	抱月樓 : 2수	畵夢	畵夢
						大雲樓 (40세작+53세작) : 2수	畵夢	畵夢
					4.8	立石村 : 1수	畵夢	畵夢
	1詩2	癸卯八月十四日夕, 小子燮夢與諸生講學, 有云: '做時不如說時, 善端兼有惡端.' 我舅氏在傍, 書示一句, 曰: '維一維精執中, 仰瞻樂有堂寬.' 樂有, 卽奉安外王考·伯父二先生遺照之堂也. 其辭微, 其志切, 有足以感發而警動之者. 述此一律, 寄呈舅氏座下, 以求其卒教之也.	8.14					
	1詩2	舅氏遠謫, 經年而百罹, 餘生無計趨拜, 連日感夢, 詩以敍懷.						
				1726	11.17	官衙精舍 : 1수	畵夢	畵夢
				1728 (58세)	1.2	洪滄浪家 : 2수	畵夢	畵夢
					4.3	(22) : 송시열	記夢	記夢
					10.5	過去因緣 : 1수	畵夢	畵夢
					10.25	濟湖高樓 : 1수	畵夢	畵夢
					11.13	玉淵洞 : 2수	畵夢	畵夢
						西施浦 : 1수	畵夢	畵夢
						寒泉庄·凌江洞 : 3수	畵夢	畵夢
				1729 (59세)	4.29	平原萬木 : 1수	畵夢	畵夢
						龜潭壽藏 : 2수	畵夢	畵夢
					4.30	二江泉壑 : 2수	畵夢	畵夢
					6.4	丈湖 : 1수	畵夢	畵夢
					6.8	滄海石室 : 1수	畵夢	畵夢
				1730 (60세)	1.27	仙閣五集 : 1수	畵夢	畵夢
					10.11	(21) : 弟婦, 득남기원	記夢	記夢
					11.5	隱溪隱翁 : 2수	畵夢	畵夢

						12.5	(20) : '九夢一女'	記夢	記夢
				1731 (61세)		1.13	溪閣題詩 : 1수	畵夢	畵夢
						12.6	(23) : 홍치중	記夢	記夢
						12.15	三泉爭流 : 1수	畵夢	畵夢
					1732	2.3	(24) : 卜築, 창붕촌, 별서	記夢	記夢
					1733	1월	祚應癸丑正月夢藝中事代錄 自書 * : 영남 술사가 선산과 산소의 길흉을 말해줌	5墓1誌2	
					1735	10.15	(25) : 송명흠	記夢	記夢
						10.25	詩人岩閣 : 1수	畵夢	畵夢
12詩5	3詩上	丁巳二月十四日, 夢見孔·朱畵像, 枕起感題.	2.14	1737 (67세)					
12詩5		聽老妾說夢*							
				1738 (68세)		12.27	(26) : 옥소의 碑閣記를 칭찬하는 사람	記夢	記夢
12詩5		與時見雙說夜夢, 俱奇異可書, 書一詩.							
	3詩上	夢遊嶺東山海數十年而寤	10.17	1739		10.17	嶺東山海 : 1수 (시고의 시와 동일)	畵夢	畵夢
				1740 (70세)		2.3	江皐松石 : 1수	畵夢	畵夢
						2.19	坐石論瀑 : 1수	畵夢	畵夢
						2.30	(27) : 이병연, 이자평	記夢	記夢
						3.3	(28) : 정용하 부자, 백발	記夢	記夢
				1741 (71세)		4.27	(29) : 여인	記夢	記夢
						6.23	山齋隣社 : 1수	畵夢	畵夢
						7.9	龜潭倚睡 : 1수	畵夢	畵夢
						11.29	一處三勝 : 1수	畵夢	畵夢
						12.4	名山異觀 : 1수	畵夢	畵夢
					1742	7.1	(30) : 귀신	記夢	記夢
				1743 (73세)		4.25	(31) : 기자, 홍범 (→「題夢讖後」)	記夢	記夢
						1.19	妙寺奇峰 : 1수	畵夢	畵夢
						2.17	岩亭土室 : 1수	畵夢	畵夢
						12.13	到處奇事 : 1수	畵夢	

						別區亭廬 : 1수	畵夢	
					12.19	危寺雙瀑 : 1수	畵夢	
					1.6	(32) : 온갖 물건이 나오는 주머니	記夢	記夢
					1.11	雙對龕佛 : 1수	畵夢	
	①詩8	甲子六月十四曉夢, 方酌饗德性之妻. 我弟欲寄詩於其兄, 臨便苦吟, 我代題一絶. 起而書之.	6.14	1744 (74세)				
					9.27	(33) : 권상유, 왕사 (→「題夢讖後」)	記夢	記夢
					12.1	幻身如來 : 1수	畵夢	
	①詩8	聽魯佐權君說夢, 戱題一詩.*		1745 (75세)				
	①詩8	夢有美道士, 來示一詩, 詩語未易解, 見漫爾. 次其韻.						
					6.20	會心地界 : 1수	畵夢	
				1746 (76세)	2.4	(34) : 도사(金緻?) (→「題夢讖後」)	記夢	記夢
					3.28	雙瀑分僧 : 1수	畵夢	
	①詩8	丙寅八月卄四日夜夢, 與亡弟談史, 到唐宋間一名臣賢而見疑處, 相對嗟噓. 將有遠行, 拜辭於外王妣, 則愍行邑之孤單, 擇兩傔而護去. 晦日之夢, 亡舅氏引喝聲而入來, 對話款穩, 傍有從弟. 今嶺伯逢一親舊人, 帖給百包牟, 余笑曰: "爾欲死耶? 爾手何故忽然如許大?" 與之胡盧, 悟來卽起, 題此一詩.	8.24						
	②詩9	夢罷咄咄鄭參判						
				1747 (77세)	6.7	盤龍名穴 : 1수	畵夢	畵夢 (합편)
						絶壁精廬 : 1수	畵夢	
⑫詩9	②詩9	丁卯十月初三日, 早起岩村, 曉夢起書.	10.3					
					10.16	(35) : 이씨 조카의 며느리, 이현기	記夢	記夢
⑫詩9	②詩9	丁卯除日, 曉起題夢.	12.28		12.28	(36) : 권선성, 홍봉조, 동해, 龍子	記夢	記夢
	②詩9	夢與連原郵丞, 月夜對話娓娓而曰: "虎巖之詩, 初看再看而不知		1748 (78세)				

		好, 三四看則絶佳矣.”看看, 非見在丞, 而南別提也. 書此一詩, 寄之.						
⑫詩9	②詩9	十八歲稚族之虛荒夢事. 鹿川李相公坐箕營時, 絹面彩畵而送之, 叔姪幕裨之請. 蓮洞李丈赴海營時, 答以戱語而一併帶去. 此事何更見於今世? 可喜古人心腸.*						
					12.25	(37) : 모란, 작약	記夢	
				1749 (79세)	1.8	岩臺指點 : 1수	畵夢	畵夢
⑫詩9	②詩10	大病中夢, 自天門, 錫以食物衣資, 又降珍劑, 又降百歲之衣. 生死感鏤一詩稱謝.						
					7.2	(38) : 붉은 국화, 병중혼몽	記夢	
⑫詩9	②詩10	十月廿五日曉夢, 迎哭閔兎山百亨喪行. 寤聞是日靷, 過水回路, 而畏寒未去. 感題一詩.	10.25					
	②詩10	夢中, 書示金鳳彩, 曰: “天生烝民, 有物有則, 讀書而知其趣, 作文而知其規, 造次如是習與行成, 及其至也, 乃賢乃聖.” 寤題一詩, 寄之.	9.30	1750 (80세)	9.30	(39) : 김봉채, 신사보의 아들, 제자들	記夢	記夢
	②詩10	記夢						
					1.7	(40) : 홍봉조, 김수증 글씨, 有思齋	記夢	記夢
					1.10	花庄奇兆 : 1수	畵夢	畵夢
	②詩10	倣夢中詩體題七句						
	②詩10	趙濟博泰萬挽 夢作	2.12					
	②詩10	夢作許多詩篇警絶, 寤來, 似若瞭瞭, 把筆而坐, 終不記存一句, 可知老氣無奈何, 有題.		1751 (81세)				
	②詩10	辛未三月十七曉夢, 農岩先生臨到, 披示一軸, 使題之. 余卽橫竪爲說, 揮筆爛然, 夢寤而盡忘之. 明發起坐, 一用其語意而述之, 題用長短句法, 詩爲五言四句, 其下之評, 卽四字三句也.	3.17					

	2詩10	夢與金台德裕·李台汝五, 對語而題詩. 又拜龜川先生, 講說大學經一章. 寤來, 怳然無以爲心, 述此一詩.	4.12		4.12	(41) : 이병상, 김덕유, 이세필, 장모	記夢	記夢
	2詩10	辛未四月廿七夜夢, 與魚台景雨, 對坐題一詩. 于書案兩頭曰: '星羅幾點分區域, 花列千般一化權.' 問曰: "此理知乎?" 曰: "知." 寤而卒篇, 遙寄之.	4.27					
	2詩10	五月初吉夜夢, 三淵公臨到, 題一絶, 問曰: "第四句是佛經語乎?" 曰: "翌然, 有聲颯然. 忽然, 有影優然. 俄然, 一小佛出立空中." 詩則若記不記. 起坐, 書此詩.	5.1					
					5.14	(42) : 이세백	記夢	記夢
	2詩10	尹舜卿·李敬長迎行送行之事, 入於辛未五月旣望之夢, 夢起題詩.	5.16					
					8.26	重江疊壁 : 1수	畵夢	畵夢
					10.1	水騎天龍 : 1수	畵夢	畵夢
					11.5	金剛幻面 : 1수	畵夢	畵夢
					11.10	(43) : 권덕성, 박성림, 글씨	記夢	記夢
					1.28	(44) : 별서, 이형좌, 후부인, 장모	記夢	記夢
					5.22	近壑新亭 : 1수	畵夢	畵夢
	2詩11	壬申六月廿二日曉夢, 與金堯夫莘老兄弟, 終日穩話如平昔. 仍入拜祠宇於百花萬柳中間, 退而鼎坐, 莘老取我鶴氅衣, 盡拔黑緣. 俄而, 其諸子以新件黑緣, 換呈之, 蓋嫌其內之多紅色, 而欲相換	6.22	1752 (82세)				

		矣. 我笑而許之, 未了事而便寤, 有一詩.						
					12.26	(45) : 어떤 사람과 對聯	記夢	記夢
	2詩11	壬申歲除前二日, 夢坐呂江, 賦詩一句, 起而足之, 以記其事, 以寄餘懷.	12.28					
	2詩11	癸酉上元夜夢, 與莘翁對坐, 盈德之淸心樓, 翁咏出一句, 我知翁之起自九原來. 寤卽足而聽之, 起坐思之, 又是夢也. 不勝感愴, 書示其子. 子文君, 君必涕淚看之.	1.15					
					2.13	(46) : 인평도위(鄭齊賢), 숙휘공주	記夢	記夢
	2詩11	夢起作						
	2詩11	夢起		1753 (83세)				
	2詩11	生年五入金剛, 而夢上望高萬景臺而賞楓, 又已再矣. 今夜之夢, 又上下於望高之臺, 雷雨一聲, 見白華庵前刻石之佛, 非三而二, 松蘿之庵, 非上下而一區也. 有二句詩, 寤而記之.						
					11.29	(47) : 남한산성, 죽은 누이	記夢	記夢
					2.18	(48) : 權尙夏, 權煜	記夢	記夢
	2詩11	甲戌二月廿六日曉夢, 騎馬江峽, 入新庄隘陋, 更欲胥宇於稍下村中, 與張姓爲鄰, 乘舟而渡. 行中從人, 叱責船工不能鋪新席而接待, 船工曰: "吾已出入水宮, 助成爾主之役, 勿須慢我!" 又多云云. 從人曰: "爾化兎而爲身乎?" 曰: "非兎, 何以出入乎? 出水, 我耳便寤." 寤題二詩, 記其語意.	2.26	1754 (84세)				
	2詩11	甲戌三月初五日曉夢, 鄭文煥在旁舍, 命在頃刻, 忽出皐復聲. 余作挽詩, 卽忘之, 更理之, 書一詩	3.5					

		于紙. 翌日起坐, 都是夢也. 半生所慾於心者, 乃發於夢, 起坐又作一詩, 斯人之愚, 曷其療矣.						
					3.5	(49) : 李粹	記夢	記夢
	2詩11	甲戌三月廿日, 與陽山大師肅文, 同與宿於雙溪丈室. 夜夢, 李光州·趙僉知曰: "師是當時之崔琢也." 出看, 師坐在好桑樹上, 仰問: "師之俗姓曰崔, 名琢?" 寤而攪之, 伊李非崔, 李知而趙不知, 是何兆也?	3.20					
	2詩11	夢坐小壇, 淡白微紅之花, 四周爛發, 起而有題.						
					5.22	(50) : 權煜, 별서	記夢	記夢
					6.2	(51) : 權祚應, 姜柱宇, 죽음	記夢	記夢
					6.11	(52) : 仙童, 진시황, 한무제, 부처	記夢	記夢
	3詩12	感夢有題, 寄示慶尹.						
	3詩12	記夢【十六句】						
	3詩12	又【十六句】						
					11.5	勝處奇情 : 1수	畵夢	畵夢
	3詩12	甲戌臘月初七之夢, 聞家弟淸隱君讀書聲, 開戶視之, 已讀上算三下算三, 而讀曰: "誠意體行之遍, 可謂孝乎阿?" 我曰: "阿吐非矣. 讀以底吐." 旁有人曰: "公不信我伯公之言非乎?" 弟亦領可. 起題一詩.	12.7					
12詩12	3詩12	元日曉夢, 起書一詩, 記之.	1.1					
12詩12	3詩12	乙亥正月初十日夜夢, 坐名山別業, 忽然寤齋趙判書, 晤語哦詩, 極從容謂: "宿他村." 而起. 寤來悵然, 題一詩, 記其事.	1.10	1755 (85세)				
12詩12	3詩12	記夢	1.15		1.15	(53) : 나무막대 괴물	記夢	記夢
12詩12	3詩12	乙亥二月初八日夜夢, 淸風府使	2.8					

		不知何姓名來坐, 授挾長之牋, 請書凌江梗槩. 我立書之, 曰: “凌江洞中有我淸如許亭, 所見不過綠水靑山·蒼松交柯, 淸籟生其間, 所坐石臺與彼岸之壁對立, 中成一畝澄泓. 其上數曲白石淸流, 明新奇絶, 非萬瀑洞中所有, 各有小亭, 而皆毁云云.” 以下不記. 是皆平日之所言, 心甚異之, 起書一詩.	
12詩12	3詩12	夢起, 聽水澮志.	
12詩12	3詩12	夢往金龍大乘寺, 各有一詩. 寤來不記, 起坐思其命意, 題之.	
12詩12	3詩12	乙亥六月廿一日曉夢, 觀復金相公來坐, 有三娼婢列侍. 我曰: “何不呼夜娘來? 何知黃橘之投不及於杜牧之之車乎?” 俄而夜娘來, 我笑曰: “爾不干我唱一詞.” 曰: “南山高此水永, 夜凉天亦悠.” 娘繼之曰: “請君安坐且安坐, 妾心如水西北流.” 我又繼之曰: “佳人莫唱梨園曲, 桂樹山中聊淹留.” 唱罷, 相公與諸娘, 皆無處. 夢寤而見壁上題一詩, 末一句亂昧未辨, 我起而足之, 是亦夢也.	6.21
12詩12	3詩12	理夢多悔, 又題詩.	
12詩12	3詩12	夢罷有吟	
12詩12	3詩12	步松月影有吟, 乍睡有夢, 傍有人曰: “此詩好乎! 汝何爲之?” 起坐復書.	
12詩12	3詩12	夢乘虛舟	

12詩12	3詩12	午夢囈吟		
12詩12	3詩13	乙亥十月初二日, 記夢有題.	10.2	
12詩12	3詩13	乙亥至月初十日夜夢, 往登金奉朝賀墓山, 讀碑文, 詠五七言二句. 悟來悵然, 依夢詩體成一詩, 寄示景留生.	11.10	
12詩12	3詩13	夢起笑題		
12詩12	3詩13	至月廿七夜夢作	11.27	
12詩12	3詩13	乙亥臘月十八日曉, 卞禮甫諸人, 來立于寒水齋庭前, 我出掛伯父先生畵像于齋之壁, 先已列掛尤翁及某某三像, 又展九曲圖. 又展別幅, 書曰: "模得七分悵. 今日之瞻仰, 列掛先生, 圖成九曲, 若當時之優游, 與同諸勝." 忽轉輾而驚寤, 卽一夢也. 有一詩.	12.18	
12詩12	3詩13	夢有府胥, 來傳僧將帖, 起坐笑題.	12.22	
12詩12	3詩13	廿七之夢, 一人來示白沙翁碑銘, 復加五聯, 伯父文純公曰: "汝自燕中來, 此翁受胡爵事然否?" 我曰: "古人云: '觀大人, 可於有過中求無過, 不可無過中求有過.' 其言是矣. 當以人求之, 是人豈有是事?" 伯父然之. 起坐, 書一詩.	12.27	
	3詩13	震應夢中來, 使我五押一翁爲詩, 起賦之.		1756 (86세)
	3詩13	尤翁嘗擧似朱子梅館作而云云, 以嘲海峰却妓之詩. 今我之夢, 不呼喚而自來, 又自謝送. 寤來, 戲書一詩.		
	3詩13	夢仰役奴二人, 來前納身貢, 我曰: "此規宜廢." 仍微吟小絶. 傍有人喜之, 曰: "然矣."		

	3詩13	丙子三月十一日夜夢, 天使出來, 方面而駁無鬚. 趙判書定而爲儐接, 余爲從事問年, 與余同花甲, 今八十六, 而韶顔如童子. 坐在靜室中, 索名畵名筆, 趙公出一帖, 而割出趙孟頫畵·褚遂良筆各一幅與之. 寤而又夢, 多少女人, 出自土中, 謂: "是高麗人李叔瓏女, 寃死而化出." 掘之無數. 其傍竈下, 咳咳有聲, 掘之皆鮒魚, 愈掘愈多, 其旅不億. 是皆何兆也? 似皆有徵, 而終是春來亂夢耶? 一詩題之.	3.11				
				3.11	一澗雙窟 : 1수 (문경본에는 그림만 있음)	畵夢	畵夢
	3詩13	丙子三月廿八日夜夢, 一宗室遺我眼鏡, 自上取見之, 曰: "吾曾見此, 是宣宗皇帝御物, 今歸於汝. 此某海上某名人所知, 可證之." 使人招之, 堅坐不來. 我咏一詩, 初曰: '獨立海中' 卽以不成語, 改以夫夫, 便寤.	3.28				
	3詩13	十月十二夢					
	3詩13	夢罷病起有吟					
				윤9.12	(54) : '구몽일녀'의 후속	記夢	記夢
	3詩13	丙子十月廿四日曉, 轉輾一枕, 失睡而臥, 牕外一人, 低聲呼曰: "爲陪去百趣大監而來." 余曰: "吾非大監, 爾何冥府差使, 容易到我?" 對曰: "我非冥差, 玉所山靈也." 曰: "吾非大監, 大監名來亦何? 必卽去符到可行." 行時, 復來護我, 對曰: "我固誤到矣, 謹當退去." 余從牕隙而見之, 其人烏巾道服, 與一童子, 帶月而立, 儀貌楚楚, 可喜. 此似夢而非	10.24				

		夢也, 逢見老妾而語此事, 妾曰: "此誠可愛人. 地下他日, 翁有佳伴矣." 忽知妾之爲已死人, 卽止不語, 此則夢也. 朝來起坐, 一一書以記之, 仍有一詩.						
	3詩13	丙子至月十一日夕夢, 眞是亭中坐, 一佛頭戴小塔, 曰: "有縫塔." 起坐, 題一詩, 歸此亭於雨花之僧.	11.11					
	3詩13	夢起, 寄魚崇政台案.						
	3詩13	丙子至月十八日夜, 手寫座目一冊, 有詩, 舅氏曰: "末句宜曰獨留." 余曰: "獨無然矣." 起坐理之, 是一夢, 題一詩.	11.18					
	3詩13	夢起聽僧話						
	3詩13	夢有人, 携我坐一室. 時月色如晝, 梅花初發, 與數三長老, 從容話語, 兒輩讀書聲, 隱隱來入耳, 方喜樂不已. 忽然取如師, 被佛衣冠而來, 指曰: "彼名五雲臺, 可坐, 扶我而登." 登來, 如師已先坐上頭. 悟來, 依依如平日, 題此一詩.						
	3詩13	夢起, 喜欲狂, 有題.						
	3詩13	夢臨滄海, 欲賦未賦.						
					12.19	海中石佛 : 1수	畵夢	
	3詩13	丙子臘月廿日曉夢, 自書于紙曰: "一吸一噓, 一陰一陽. 一明一暗, 一晝一夜. 一伸一屈, 一生一死. 人生其間, 或脩或短. 玄男非夭, 玉所非壽. 莊周非昧孔仲尼, 康節已知周濂溪." 噫! 此何兆也? 豈因想耶? 末端一句, 似戲非戲, 似有微意, 我不知也. 起坐惝怳, 書此一詩, 付之壁上, 以待神詔.	12.20					

	3詩14 (15)	夢飛鶴來下, 笙簫在上.						
	3詩14 (15)	夢作	11.17					
					12.3	(56) : 李見龍, 李某	記夢	記夢
	3詩14 (15)	十二月初七日夜夢, 余出立庭除, 欲吸南草, 呼火來, 火散於廊外墻下, 或人來而火不來, 或火來而人不來. 俄而, 靑山守李仲受曰: "外軒在之水布, 可作玉所翁衣五領." 呼針手, 來卽三男傔而一女也, 取其水布之火浣者, 成二衣, 火燒之臭擁鼻. 寤來, 亦聞之, 問之僧, 僧皆不知. 余哦咏五律不已, 仲受曰: "何不題出?" 題出韻叶簾叶而對, 不成非律非古, 只是罔象之詩. 天明, 書之紙.	12.7					
	3詩15	述夢	12.17		12.17	記夢文 : 蔡之洪, 尹鳳九	8雜著6	
					12.19	[56, 16-68면] : 御室, 畵器, 하사		記夢
	3詩15	夜夢, 過某邑, 恨未入拜大夫人, 人曰: "五寸親, 何繁?" 我聞之, 慨然曰: "五寸之上行與我, 親爲從兄弟. 又其上, 我祖之同氣也. 吾心與君輩異." 起坐, 題一詩.		1758 (88세)				
	3詩15	曉夢, 作儷語曰: "老夫知名, 男兒得意." 有一方伯, 擊節歎賞. 起賦一詩.						
	3詩15	夢有題畵, 一句曰: '碧樹歸丹錦繡秋' 一源屬對曰: '靑天散月玲瓏夜' 我曰: "不及吾流動天機." 起而足之.						
	3詩15	李龍潭幼莘公, 忽來對坐, 室外有人, 咏過一句. 是一夢, 起而書此上句.						
	3詩15	夢起						

	3詩15	辛丑八月十五夜, 與竹下子泛舟於江景南湖, 有聯句一絶. 今日是夜, 病臥江亭, 悵感成詩, 用當日之語, 次當日之韻, 不知冥中亦有一詠否. 少睡, 夢與竹下子, 泛舟哦咏, 亦知冥中果耿耿不已. 起坐, 又題一詩.	8월					
					9.29	記夢 : 權尙明, 제생등	8雜著6	
	3詩15	昨夢, 聖上以老臣多吟詩, 下拿推之命, 纔有南路之謫, 一詩謝之. 以詩被譴, 以詩謝恩, 可謂下愚不移.						
	8雜著6	昨夢, 聖上以老臣多吟詩, 必有害於精神, 下拿推之命, 又謫于靈光, 拜拜至恩, 一詩題之, 不可被謫. 後又題詩, 故更書長短一詞.						
	3詩15	夢作【半醒半囈而成此詩】						
						古亭溪壑 : 1수 (수록순서상 55~56세작)	畵夢	畵夢
						後來緣業 : 1수 (수록순서상 65~69세작)	畵夢	畵夢
	8雜著6	夢哭載文墓, 起題一辭.						
15雜著		玉所翁贊 夢作						
15私稿5		至月小望前夜夢, 應城主索.						
15私稿5		五十五疊 記夢						
15私集2		宿陰城, 夢湖西.【去京師時】						
15私集2		夢作一句, 覺後足成圓篇.						
15私集2		夢遊家山						
16歌曲		記夢				題夢讖後 (1746년 이후 작)	8雜著4	

▮ 참고문헌

권섭, 이창희 역, 『옥소 권섭의 꿈세계: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다운샘, 2003.
권섭, 이창희・장정수・최호석 편, 『玉所稿』(전17권), 다운샘, 2007.

권정은, 「권섭의 꿈의 기록과 그 심리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6,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71-97면.
권혁대, 「옥소 권섭의 한시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1.
박요순, 「옥소 연구」, 『한국언어문학』 14, 한국언어문학회, 1976.
_____, 「신발견 황강구곡가고」, 『어문논집』 20, 안암어문학회, 1977, 113-126면.
_____, 「권섭의 가사연구」, 『국어국문학』 85, 국어국문학회, 1981, 106-132면.
_____, 『옥소 권섭의 시가연구』, 탐구당, 1987.
박태진, 「권섭의 '기몽시' 창작에 나타난 자아탐색의 가치 고찰: 「몽기」의 '기몽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147-182면.
신경숙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_____,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안계복, 「옥소 권섭의 꿈의 세계에 나타난 경관 특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45-55면
안세현,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권섭(1671-1759)의 「몽기」와 유경종(1714-1784)의 「의원지」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7,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99-129면.
양승목, 「옥수 조면호의 기몽류 글쓰기와 자아의 탐색」,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111-153면.
_____, 「조선후기 몽기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_____, 「옥소 권섭으로 본 기몽문화의 제 양상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71, 우리어문학회, 2021, 467-499면.
윤진영, 「옥소 권섭(1671~1759)의 그림 취미와 회화관」, 『정신문화연구』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41-171면.
정난영, 「옥소 권섭의 몽화기 연구: 내면세계의 흐름과 산수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9, 한민족문화학회, 2015, 189-216면.
조영임, 「옥소 권섭의 「몽기」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401-430면.
최호석, 「『옥소고』 소재 몽화의 제작에 대한 연구」, 『역사민속학회』 2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113-142면.
_____,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 석인본 『옥소집』의 간행」, 『영남학』 7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1, 7-32면.
_____, 「옥소의 자편문집 『옥소고』 「상」・「중」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85, 동양고전학회, 2021, 43-86면.
황경일, 「옥소 권섭의 산수 산문 연구: 「해산록」과 「몽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A Study on Gwon Seop's Literature that records dreams
—Focusing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

Yang, Seung-Mok*

This paper was prepar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holistic study of Okso Gwon Seop's literature that records his dreams. Existing studies on literature in which Gwon Seop recorded his dreams were generally limited to the *Hwa-mong (「畵夢」)*. However, this is only a part of a literary work written by Gwon Seop based on his dream. In fact, Gwon Seop has created a very vast amount of poetry and prose based on his dreams throughout his life. These works form a group, sharing the attribute of 'gimong (記夢)' in various forms. A reasonable and balanced light on this is essential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his literary world.

The first task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full picture of the literary works that recorded Gwon Seop's dreams. As a result of examining all of the existing *Oksogo (『玉所稿』)*, 115 poems recorded dreams and 120 prose poems recorded dreams. The information on this work is listed and attached at the end of this article. Based on this, the literature in which Gwon Seop's dreams were recorded was reviewed in general,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works, the trend of creation, and the composition of literary styles were summarized. After that, I focused on the content of the work,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that penetrated the whole, and explored the background that made this unique achievement possible.

This attempt laid the foundation for a more extensive and full-fledged study of Gwon Seop's Literature that records dreams. It is hoped that the list and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opening the next chapter of research in this field.

* Researcher, Institute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Dongguk Univ.

Keywords: Gwon Seop (權燮), *Oksogo (『玉所稿』)*, *Mong-gi (「夢記」)*, *Hwa-mong (「畵夢」)*
Literature that records dreams, Poem that records dream, Dream.

접수일: 2021.12.31.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05.